

우리 수령님의 3대 행복

어비수령님은 인물이 뛰어나고 쌓으신 업적이 비범하실뿐 아니라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고결한 인성관, 행복관을 지니시고 한평생을 빛내어오신 대성인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오래 동안 몸가까이 모시고 사담하는 나날에 우리 수령님의 숭고한 행복의 세계를 가슴뜨겁게 체험한 나는 그것을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고 싶은 충동에 복받쳐 붓을 들었다.

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신께서 누리시는 행복에 대해 《...복중에서도 가장 큰 복들인 인민복, 동지복, 후계자복을 받은것이 나의 3대행복입니다.》라고 말씀하시었다.

금옥같은 이 말씀에는 등지고 그 어느 위언에게서도 찾아볼수 없는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행복관이 집약되어있다. 김일성조선의 100년사를 총화하는 뜻깊은 올해의 태양절을 맞으며 천출유인인 숭고한 행복의 세계에 대한 가지가지의 뜻 잊을 추억을 되돌아본다.

1

어비수령님께서 자신의 복중에서 인민복을 제일 앞자리에 꼽으신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더없는 영광이다. 세상은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인민이 있지만 수령께 복이 된 인민은 오직 우리 인민뿐이다.

력사에 류례없는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가장 포악한 두 세계주의강력을 라송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세기적기적을 창조한 영웅적인민. 자기 운명을 구원해주고 이끌어주는 수령을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함없이 옹위하고 받들며 아는 충직한 인민!

이런 인민을 둔것이 그러도 기쁘시어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생전에 거듭 우리 인민은 참 좋은 인민이라고 공지에 넘쳐 말씀하신것이리라.

세계의 그 어느 사건에도 없고 인류사의 그 어느 위언전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우리 수령님의 인민복에 대하여 생각할때면 지금으로부터 19년전 4월 미국 《워싱턴 타임스》지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집견을 받던 때의 일이 눈에 선히 떠오른다.

서방언론에서 제논조하 하는 그들이었지만 어비수령님을 만나뵈는 순간 그들의 위언적공포에 완전히 매혹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탄성을 감동시키는 자신께 축하의 인사를 올리는 대표단성원들에게 사의를 표하시고 그들이 제기하는 질문들에 스투렘없이 담담한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미국기자들사이의 대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활기를 띠고 진행되었다. 그 깊이와 폭을 알수 없는 우리 수령님의 신비한 천성의 세계에 끌린 그들은 수령님께 탄생을 맞았다는 감회와 그이께서 즐기시는 취미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일반적으로 국가지도자들의 취미는 해당 나라의 정치와 사람들의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다른 나라들의 정치행방에 대하여 추측을 곤두세우는 탐방기자들이 국가지도자들이 무엇을 좋아하며 어디에 조예와 관심이 깊은가는 문제부터 파고들곤 하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무엇이 인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특출한 위언적공포를 지니시고 20세기 국제정치 흐름을 주도해오신 우리 수령님께서 어떤 취미를 가지고계시는가 하는 문제는 서방언론계의 커다란 관심사로 되쳐 앉수 없었다.

미국기자들의 질문을 받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잠시 동안은 두시었다가 반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나는 80평생 인민의 사랑과 믿음속에서 살아온것을 더 없는 행복으로 여기고있다. 나는 앞으로 인민의 기대와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려고 한다. 나에게는 내놓고 말할만 한 특별한 취미는 따로없다. 책보기를 좋아하고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지내는것이 나의 취미라고 말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정녕 인민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며 그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우리 수령님께서서만이 하실수 있는 금언이었다.

하나의 물방울에도 온 우주가 비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수령님의 숭고한 취미에서 천출유인의 류다른 인성관, 행복관에 대하여 알게 된 그들은 이를할수 없는 강정에 휩싸여 그이를 경건히 주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가장 숭고한 인간애,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천공으로 지니신 위대한 어비수령님이셨습니까.》 이 세상에 하느님이 있다면 그 하느님

은 바로 인민이며 정치도 혁명도 당도 국가도 인민을 위해 필요한것이다! 정치지도자의 막은 인민의 사랑과 믿음에 있다!

이것이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에 관통되어있는 인민관이며 행복에 대한 가치관이였다.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드시고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진실적인 영웅사시사를 수놓으신 우리 수령님의 정치철학의 기초로 된것이 바로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관점과 립장이였다.

지금도 나는 주제 82 (1993)년 4월 캄보스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브라질 10월 8일혁명운동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집견을 받던 때의 일을 잊을수 없다.

당시 브라질 10월 8일혁명운동은 이전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된 예상밖의 정치지진으로 하여 좌왕우왕하고있었다. 자기 당의 정로를 두고 번뇌와 절망속에 모태기던 캄보스 두계혁명의 원로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침을 받을 결심을 하고 대양과 대륙을 넘어 우리 나라를 찾아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캄보스와 그 일행을 따뜻이 만나주시고 화가에애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나누시었다. 그이께서는 이전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후 사회주의력량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명철한 판단과 철의 논리로 분석평가해주시었다. 이득하여 화제를 둘러싼 수령님께서서는 존엄하였던 우리 혁명의 나날들에 있었던 사실들을 회고하면서 자신께서 지금까지 오랜기간 혁명투쟁을 해오면서 얻은 결론은 인민의 힘을 믿고 인민에게 의지하여 투쟁하면 반드시 승리하지만 인민들과 동지계 되면 실재를 면할수 없다는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김일성조선의 존엄한 조국해방전쟁, 전후 제2차미에서 나라를 일떠세우던 나날들에 제속하신 자신의 풍부한 투쟁경험을 기초하여 혁명승리의 철리를 명료하게 밝혀주시는 우리 수령님의 기록한 모습들 무리라는 대표단성원들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은것과 같은 환희에 넘쳐있었다.

어비수령님께서서는 감동에 젖어있는 그들을 믿음어린 논리로 바라보시며 고난과 시련이 앞을 막을수목 인민들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인민들속에 들어가면 뉘고나가지 못할 시련이란 있을수 없다고 이야기하시었다.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라. 통속적이면서도 뜻이 깊은 한마디의 말은 장황한 연설이나 화려한 글보다 더 큰 효과를 내라는 법이다.

천만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혁명의 심원한 진리를 받아안은 캄보스는 성격과 흥분을 억제 못하며 수령님께 《이제는 어둠속에서 헤매다가 평명천지에 나섰것처럼 앞길에 환합니다. 저는 조선에 와서 존경하는 김일성동지를 만나뵈고 백승의 원천을 알고 갑니다.》라고 말씀올렸다.

그것은 독창적인 혁명철학,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로 만민을 한몸에 안아주시고 저주의 기치높이 시대의 앞길을 열어나가시는 불세출의 정치가, 위대한 인민적수령께 매혹된 캄보스의 심정의 토로였다.

한평생 이인위원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우리 수령님의 마음속에에는 언제나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짙 지있었다.

주제 64 (1975)년 5월 일본의 전형적인 부르조아탐방기자였던 다카기 다케오 두번재로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어비수령님의 집견을 받을 때였다.

어비수령님께서서는 지난 시기 일제의 《오미우리신봉》 장준투파원으로서 일제의 《토벌》작전에 종군한바 있는 다카기를 넓은 도량과 포용력으로 따뜻이 맞아주시었다. 자신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책망할대신 허없이 대해주시며 친히 오찬까지 마련해주시는 우리 수령님의 고매한 덕담에 감복한 그는 정중히 술잔을 들고 인민들과 교락을 같이하시는 주석각하께서 슬기로움 조신인민을 위하여 무디 건강하시기를 축원한다고 인사를 올렸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기본 표정으로 촉백잔을 드시고 인민을 위하여 오래 살라니 참으로 고맙다고, 우리 인민은 슬기롭고 영웅적인 인민이라고 하시며 그래서 자신께서는 항상 인민들속으로 들어간다고, 료동자, 농민들속에 들어가면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고 밤도 잘 당기며 잠도 잘 온다고 화기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믿음이 굳게 어린 우리 수령님의 말씀은 듣는 순간 다가가는 그이께서 《인민》이라는 두 글자 화회에 오르지만 하면 금시 활기를 띠신다는것을 온몸으로 직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 어려움도 있고 저는 주석께서 명석우에 농민들과 같이 앉으시

어 이야기를 나누시는 사진을 보고 그런 순간을 제일 행복하고 기쁜 때로 여기시지 않는가고 생각하였는데 자기의 생각이 옳은가고 무릅없는 질문까지 하였다.

그러자 어비수령님께서서는 그의 말을 긍정하시며 나는 그런 때가 제일 기쁘고 행복하다고, 나는 인민들속에 들어가 배우기도 하고 배워주기도 하는데 중요한것은 그들에게서 참고가 될 이야기를 많이 듣는것이라고 이야기하시었다.

인민들속에 계시는것을 더없는 기쁨으로, 락으로 여기시는 우리 수령님의 한없이 겸허하신 말씀이였다.

어비수령님의 고결한 위언적공포에 탄복한 다가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되어있다. (아, 저분이사야말로 만민장설도 녹일 뜨거운 사람으로 조선인민모두를 한몸에 안아따뜻이 보살피시며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신는 진정한 인민의 어비이시구나. 그처럼 자애로운 수령을 위해 인민들이 충성을 바치는것이야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은가.)

그러나 위대한 인민이란 없다. 위대한 수령이 있어 위대한 인민이 있고 수령복이 있어 인민이 만복을 누리는 법이다.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길가의 조약돌신세를 면치 못했던 수난담던 우리 민족의 어해와 세상에에서 가장 존엄을 민족으로 자랑할지는 우리 인민의 오늘을 돌이켜보라.

망국노로부터 자주적인인민으로 극적인환을 이룩한 그 범상치 않은 력사의 어느 갈래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볼보다 뜨거운 인민사랑의 손길이 어려웠지 않은데가 없다.

하기에 《영웅적인민》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민을 떨치는 인민》이라는 국제사회의 칭송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눈시울 적시며 수령복을 노래하는 우리 인민이다.

하지만 어비수령님께서서는 인민을 제일로 여기시며 자신께서 누리시는 인민복에 대하여 자랑찬 하신것이니 우리 수령님같이신 자애로운 인민의 어비이가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겠는가.

태양이 있어 만물이 존재하듯이 행운중에서도 가장 행운인 수령복이 있어 우리 인민의 참된 삶과 행복이 있고 나라와 민족의 통성민영이 있는것이다.

2

위대한 수령님사이에는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고티락 운명도 함께 하는 동지가 참으로 많았다.

여기에 어비수령님의 숭고한 동지애 세계의 일단을 보여주는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있다.

강덕도 새로운 주제 81 (1992)년 4월 15일 평양에서는 세계 130여개 나라에서 온 420여개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어비수령님의 탄생 80돐을 경축하는 연회가 있었다. 이날 연회장에 올린 수령님의 우렁우렁한 음성은 오늘도 나의 귀가에 정쟁하였다.

... 나는 혁명의 길에 나선 첫날부터 오늘까지 언제나 동지들과 인민들의 사랑과 보살핌속에서 살아왔다.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은 간고한 혁명투쟁의 나날 나를 극진히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성심성의로 도와주었으며 시련의 시기마다 나에게 용기와 신심을 주고 고무해주었다. 나는 이렇듯 충실한 혁명동지들과 훌륭한 인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온것을 커다란 자랑으로 여기고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장내에서는 열렬적인 박수갈채가 터져올랐다. 자신께서 누리시는 동지복, 인민복에 대한 긍지와 만족감으로 충만된 어비수령님의 연설은 연회에 참가한 외국수령님과 대표들을 크게 감동시켰다. 그들은 한결같이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찬 주석각하의 연설은 세계의 그 어느 정치가도 모방할수 없는 가장 진실하고 훌륭한 연설이라고 하면서 수령님을 높이 칭송하였다.

어비수령님을 열렬히 칭송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나의 가슴은 온 세상을 통째로 받아안은 듯 벅차올랐다.

동지를 얻으면 천하를 얻고 동지를 잃으면 천하를 잃는다는 진조를 지니시고 동지를 위한 일이라면 천신만고도 막아오르시던 우리 수령님!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동지관, 위언적공포에 매혹되어 한평생 그이의 영원한 동지가 될것을 결심하고 혁명투쟁에 나선 열혈투사, 전우들은 그 열마였었다. 그러나 어비수령님께서서는 자신께서 위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소중히 가꾸고

꽃피우신 동지복을 전사들의 덕으로 고스란히 돌리시고 그들에 대해 언제나 고맙게 여기시었다.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동지애의 세계는 그 폭과 깊이에 있어서 력사에 전무후무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류의 자주위업에 한몸바칠것을 결심한 사람이라면 언어와 피줄, 국적이 달라도 동지로 굳게 믿으시고 끝까지 위해주시었다.

우리 수령님께서 생전에 잊지 못해하시며 자신의 혁명전우로, 국제주의자의 전형으로 내세워주신 중국항일혁명투사 장올화!

《장올화반사의 혁명업적은 조종량 국민인의 천신의 빛나는 상징이다. 력사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혁명업적은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것이다.》

어비수령님의 활달한 필체가 금문자로 새겨진 력사의 기념비가 멀리 평양에서 국경을 넘어 무성에 도착하자 행사참가자들은 하늘의 높이에도, 바다의 깊이에도 비기지 못할 절세위인의 뜨거운 동지적사랑과 혁명적리애에 눈시울을 적시었다.

참으로 장올화반사기념비제막행사는 전 투격우의와 누대로 이어진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의 전성적인 친선의 력사에 아로새겨진 동지적리애의 숭고한 화폭이였다.

장올화는 많은 땅과 재산을 가진 대부호의 아들이었지만 일찌기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위언적공포에 매혹되어 그이를 들도 없는 벗으로, 스승으로 받들고 수령님의 혁명철학을 적극 도와나신 람십적인 지식청년이었다.

자신과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그 누구든 혁명동지로 끝까지 믿고 걸을것을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우리 수령님의 장올화에 대한 정은 자애로웠다.

력사적인 남포동지의방첩에 따라 조선인혁군 총력부대를 거느리고 국경지대로 진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송현 포령부근에서 장올화를 만날것을 결심하시었다. 일부 지휘관들은 아무리 그가 수령관동지의 소학동창이고 또 다년간 혁명을 하였다고 하여도 사람의 계급적본성이야 어디 가겠는가고 하면서 그를 만나지 않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말씀드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러는 그들에게 나의 신변을 걱정하는 동무들의 마음은 리해한다. 그러나 사평관의 포령행을 반대하는것은 나의 잘못도 없는 혁명행방에 장올화에 대한 목독인 목숨에 우리의 통일전선정세를 대한 목적으로 달리 필수 없다고 존중히 말씀하시었다.

우리 수령님의 포령행, 그것은 한번 인연을 맺은 동지는 끝까지 이기고 사랑하시는 그의 동지애에 의도와 확고부동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신 실례였다.

어비수령님의 이러한 위대한 동지적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장올화반사는 적들과 계투되어 있는 악령을 뚫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조선혁명의 사령부의 안전을 지켜싸울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혁명적리심과 믿음은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세계 진보적인동지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활력소이고 자랑본이였다.

철매인민이 오늘날도 잊지 못해하는 알맹데도 우리 수령님의 크나큰 동지적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았기에 라틴아메리카에서 반미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를 위해 전열히 투쟁할수 있었다.

철매공화국 국외 상인의 자적으로 우리 나라를 방문한 그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은것은 지금으로부터 42년전 불이였다.

어비수령님께서서는 세계주의를 반대하는 공동전선에서 싸우는 전우를 만난것이 기쁘다고 하시며 반제투쟁에 나서는 여위대한 수령님께에 대하여 그와 오랜 기간에 걸쳐 친지처럼 담화를 나누시었다.

불과 불이 오가는 격전장에서는 생사를 같이하는 사람들만이 주고받을수 있는 고귀한 동지적부담-전우!

알맹데는 자기를 전우라고 친근하게 불러주시는 우리 수령님의 크나큰 동지적인 음에 너무나 황송하여 감복을 금치 못하며 그이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라틴아메리카에서 혁명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싸울것을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후 대통령으로 된 알맹데는 수령님과 의 언약을 지켜 토지개혁과 주요산업국유

화를 실시하였으며 자기 나라에 있던 미공군기지를 철거하는 강경한 반미자주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저들의 《고요한 뒤동산》에서 좌익대통령이 취한 진보적인 조치들에 당황망조한 미제가 철매의 군부세력을 부추겨 군사정변을 일으키자 알맹데는 혁명적지조를 지켜 손에 총을 잡고 마지막까지 결사적으로 싸우다가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그의 회생을 두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알맹데를 철매의 영웅, 전세계로통계급의 영웅으로 내세워주시고 그의 최후를 빠리콤포문을 지키기 위한 투쟁과 맞먹는 영웅적인 투쟁으로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세계정치사에는 리범의 공동성과 리해관계의 일치성, 외교상의 요구로부터 호상 깊은 관계를 맺고 지지하며 도와준 국가지도자들과 개별적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어있다.

그러나 우리 수령님처럼 정의의 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참된 동지, 전우로 굳게 믿으시고 그들에게 주실수 있는 사랑과 응원을 다 베풀어 주신 그런 위인은 없다.

진정 어비수령님의 동지애의 세계는 국경을 모르고 민족을 초월하는 무한대한 헌신의 세계이며 그것으로 하여 우리 수령님의 동지복은 더욱 위대한것이다.

3

어비수령님께서서는 생전에 자신께서 누리시는 후계자복에 대하여 커다란 긍지를 가지고계시었다.

나는 다른 나라 지도자들이 우리 나라에서 령도의 계승문제에 빛나게 해걸던데 대하여 찬란한 부러움을 금치 못할때 수령님께서서 더없이 기뻐하시던 모습을 수없이 목격하였다.

주제 74 (1985)년 11월 중국을 방문하신 김정일동지는 중국당 지도자와 담화하신 때였다.

이것이중 어비수령님께 중국당 지도자는 두대전 중국을 방문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뵈는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김정일동지는 젊은이 지도자이지만 국제무대에서의운동과 세계의 정치, 군사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경철한 정도로 높은 식견과 탁월한 분석력을 가지고계시며 인지도 폭격도 위대하십니다. 김정일동지는 외교에서 아주 현숙하고 세련된 정치가이시며 인간적으로 특이한 매력과 감수성을 가지고계시는 우리 시대의 거장이십니다. 주석동지께서는 정말 후계자를 잘만 행운을 지니고계십니다. ...

한 나라의 지도자가 공식석상에 다른 나라의 후계자를 이렇게 높이 예찬한것은 의외무대에서 이례적인것이다. 그것은 우리 수령님의 후계자복에 대한 부러움의 표시인 동시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한 찬탄이였다.

후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일꾼들에게 중국당 지도자가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예찬한데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자신께서는 김정일동지를 열렬히 칭송하는 그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뻐했다. 그만이란 다른 나라 당 및 국가지도자들이 김정일동지를 칭송하여 한 말들은 결코 후회로부터 나온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훌륭한 후계자를 두신 더없는 만종각과 행복감으로 하여 기쁨에 넘쳐계시는 수령님의 모습을 뵈으면서 우리는 력사적승적으로 후계자문제를 가장 완벽하게 해결하시어 조국의 창창한 앞날과 주체혁명위업성취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고 그의 빛나는 예지와 혁명성에 탄복해마지 않았다.

세상을 둘러보면 나라와 민족의 장래명운을 좌우하는 후계자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하여 혁명도 망치고 나라도 파국을 면치 못한 실례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당과 군대,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셔오게 모신 시련과 난관을 헤치며 어비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고있다.

우리 수령님께 있어서 위대한 장군님은 자신의 한평생이 어려웠는 조국과 인민을 달기실수 있는 유일한 후계자이시었다.

하기에 어비수령님께서서는 외국손님들을 만나실 때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자주 말씀하곤 하시었다.

주제 77 (1988)년 6월이라고 생각된다.

캄보자의 노동동 시하누크친왕 (당시)이 우리 나라에 찾아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를 접견하신 자리에서 만족한 표정을 지으시고 후계자복에 대하여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김정일동지는 나라의 크고작은 일들을 다 맡아보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있었다. 그는 언제나 자신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예를 많이 쓰고있다고 말씀하시었다.

이날 어비수령님께서 시하누크친왕에게 하신 말씀가운데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대적인 평양산원과 김일성경기장, 빙상관, 창평원, 인민대학습당을 훌륭하게 건설하여 수령님의 소원을 풀어드린것이기도 있고 수령님의 건강과 안병을 위해 마음써오신 가슴뜨거운 사연들도 있다.

인제인가 우리 나라를 방문한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 대통령이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고 조선에는 창조적 령수가 있다고 말씀올렸을 때에도 수령님께서서는 당신이 말하는 창조적 령수가 바로 김정일동지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었다.

이 말씀에는 가장 훌륭한 후계자를 두신 우리 수령님의 무한한 행복과 긍지가 어려있었다. 어비수령님께서서는 세계 정치가들까지 존경과 찬란을 금치 못하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와 민족, 주체혁명위업의 미래를 책임져주시고 바라는 심정을 담아 그의 령도적권위보장관 건강에 늘 마음을 쓰시었다.

1980년대 초엽 어느날 대외사업을 맡아보던 일꾼이 어비수령님의 사업일지에 긴장한것을 고쳐하여 그날 예견되었던 외국대표단전견을 뒤로 미루었으면 하는 희망을 수령님께 말씀드린적이 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다른 나라 대표단들을 만나 담화를 하는것은 김정일동지가 자신에게 준 분을이라고 하시며 김정일동지는 당의 령도자이며 대표자이다, 총리로부터 평당원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당원들이 김정일동지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지나온 세계혁명운동사를 돌이켜보면 수령이 혁명위업을 계승할 후계자를 내세운적이 있어도 후계자의 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해 수령도 후계자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스스로 제기한 때는 없다.

바로 이처럼 위대한신 우리 수령님이시기에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권위와 안병을 보장하고 장군님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대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기 위해 출판물류의 로고와 신철을 기우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50돐에 즈음하여 어비수령님께서 몸소 붓을 드시고 한자한자 써내려간 《광명성찬가》! 그것은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품조를 지니시어 만민의 다함없는 경모와 칭송을 받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크나큰 기대와 믿음, 장군님을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두신 무한한 기쁨과 행복이 운운을 이루고 시어가 된 우리 수령님의 후계자복에 대한 불멸의 송가인것이다.

력사에는 지나온 한평생을 긍지와 보람속에 돌이켜보며 자신이 제일 행복하였다고 부러워하며들이 적지 않다.

하나 우리 수령님과 같이 천만민세월이 흘러도 영원불멸할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어 정치지도자가 받아안을수 있는 인민복, 동지복, 후계자복을 다 누리신 위대한 행복자는 없다.

어비수령님의 숭고한 행복의 세계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그대로 이어지고있다.

피눈물의 언덕을 넘어고난의 행군, 강행군길을 걸음같이 헤쳐온 인민이 그리도 장하고 대견하시어 우리 인민은 참으로 좋은 인민이라고, 우리는 세상에 없는 인민복을 누리고있다고 하시며 이인위원의 장정을 이어오신 자애로운 어비수령님!

동지들이 있기에 나도 있고 동지들이 없으면 나도 없고 하신데 혁명전사모두를 동지로 굳게 믿고 그들에게 주실수 있는 사랑과 믿음, 영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위대한 동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어비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는것이며 가장 큰 리상은 수령님의 일심단결 이 땅우에 국적이 강하고 모든것이 총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워없이 잘사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는것이다.

그 소원, 그 리상을 실현하시기 위해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오늘도 불철주야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어비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총공격전을 승리로 이끌고계시니 우리 인민처럼 대를 이어 수령님, 장군님을 누리는 행복인민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으리라!

천세의 위 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어 우리 나라에는 어비수령님께서 바라고바라시던 모든 동원이 활짝 꽃피는 통일전선에서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온 누리에 찬연히 빛을 뿌릴것이다.



옷차림에 깃든 다심한 은정

언제나 우리 인민들의 옷차림에 깃든 은정을 돌리시고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셨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결한 사랑이 화창한 봄날과 더불어 뜨겁게 일어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김정일동지는 그가 지니고있는 령도력과 품도, 그가 발휘한 충실성과 헌신성, 그가 이룩한 업적으로 하여 인민의 지도자로서 인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으며 높은 권위를 지니고있습니다.》 1970년대 어느해 봄날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 한 녀성 일군을 부르시어 며칠전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시던중 수도시민들 특히 녀성들의 불철주야차림을 관찰하신 사실을 이야기 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의 옷차림을 더 밝고 화려하게 갖추어줄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옷차림을 잘 갖추는 것은 사람들의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되며 그 사회의 문명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고, 특히 녀성들의 옷차림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었다. 이윽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는 더 많은 천과 옷을 생산하여 녀성들의 옷차림에 새로운 변혁을 일으키야 한다고 하시면서 요즘 처녀들이 입고다니는 조선옷차림에 대하여 물으시었다. 끝없는 격정속에 일군은 불계절에도 맞고 단정한것이 아주 보기 좋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의 말을 증명하시며 세계의 수많은 나라 녀성민족옷가운데서 아마 우리 나라 녀성들의 치마저고리를 따를만 한 옷이 없을것이라고, 그런데 자신께서 한가지 생각되는데는 우리 녀성들이 조선옷을 입을 때 저고리와 치마를 같은 색으로만 입지 말고 서로 다른 색깔로 조화를 맞추어 입어도 좋겠다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조선옷의 기본특성을 살리면서도 저고리와 치마의 형태를 더 탐구하고 세련시켜 우리 민족옷의 우월성을 잘 발휘시키는데 머리를 써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나날이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고상해지는 우리 녀성들의 옷차림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렇듯 높은 뜻과 친이비사랑이 뜨겁게 어려어움을 사랑받으며 무디 잊지 마시라.

본사기자

만복의 고향집

그리움의 사립문 열고
뜨락에 들어서니
오늘도 옛모습 그대로인
추녀 낮은 작은 초가집

나라없던 그 세월
인민의 가난과 설움이
그대로 수배되어 있는 집
우리 수령님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이여

하늘가에 처마를 얹은
행복의 거리에서 사는 내 마음
하얗는 생각의 걸음걸음 옮기
려니
한발자국이면 오늘 이 토방이
아득히 높구나
작은 트랙이 정녕 넓구나

팡복의 뜻 품고 우리 수령님
저 토방들을 내려
고향집뜨락을 나서실 때
어깨에 떠매셨던 눈물젖은
강도
무너지듯 실린 설움의 하늘

앞에는 증중첩첩 피어린 협산
준령

허나 수령님마음속엔
아름다운 무지개가 높이높이
비껴있었더
인민의 행복 주령질 무풍도원에
기어이 꽃피우실 꿈의 무지개...

사랑가 부르시던 민영의 밤에
우동불가에서 그리시던 그
리상
실한풍에도 얼지 않았고
혈전의 불비속에서도 타지
않았거니

정녕 소박한 이 집에서 솟아
오른
인민의 태양이어서
한평생을 인민위해 다 바치
시고

영원한 인민의 하늘에서
빛나 빛나시는 우리 수령님
아, 해빛있어 천만꽃이 땅을

러치듯
복중에서 제일 큰 태양복을
안아올려
이 땅의 만복을 꽃피워준 집이여
인민의 웃음소리 창창한 하늘
가에
나의 집도 떠올려준 고마운
집이여

우러러 우러를수록
한없이 높아만 보이는 고향집
초가이영 그 오르오리
은실금실 해살로 엮어드린들
감사와 영광 어이 다 드릴수
없어

아, 그리움의 꽃바다에 떠받
들려
무궁도록 내 나라의 복을 낳는
집이여
장군복을 대대손손 누리며
사회주의강성대국 큰 지붕아래
인민은 후손만대 영원히 안겨
살리라

아, 그리움의 꽃바다에 떠받
들려
무궁도록 내 나라의 복을 낳는
집이여
장군복을 대대손손 누리며
사회주의강성대국 큰 지붕아래
인민은 후손만대 영원히 안겨
살리라

창성의 마음

아래도 산
뒤에도 산
창성이라 그 옛날 내 고향은
산을 닮으며 떠나는 사람 많
아도
찾아오는이 없던 궁벽한 산촌

오늘은 행복의 메부리로
소문난
내 고향산이 부러워
그림처럼 아름다운 선경마을
멋짐이공작들이 부러워
누구나 찾아오는 고향

4월이라 이 봄날
풍요한 열매 주렁질 가을날
그러며
산에산에 만발한 꽃들을 보니
내 마음 그리워지는 수령님

못 잊어라 못 잊어
잔뜩목을 해치며 한자욱
벼랑길을 돌으며 또 한자욱
로매기 우리들도 못 가보았던
협한 산 길은 풀 다 돌아보
실 때

세상에 또 있으랴
쇠물이 흐른다
주체철이 흐른다
이제는 수령님념원이 풀렸
다고
숫구치는 적에게 눈금을 적시
시던
우리 장군님의 기쁨이 흐른다

쇠물이 흐른다
은 나라 대경사의 환희가 흐
른다
가는 곳마다 펼쳐진 CNC기계
바다

그이의 얼굴에 흐르던 땀방울
땀방울
한니 버림받았은 내 고향산들을
황금산으로 만들자하신 수령님
그날부터 창성은 변하고 변했
어요
산기슭엔 강변이슬 우거지고
싸리골 휘산발엔
구름처럼 흐르는 양떼 염소떼

들리느니 물방아소리 외롭던
산촌에
앞산에서도
뒤산에서도
기쁨가득 따들린
머루송이 다래송이 온갖 열
매로
행복을 쏟아내는 공장의 동음
소리...

못살 뎨 못살아서 그러도 자주
오시고
잘살 뎨 보란듯이 내세워주시려
오시고 또 오신
그 사랑에 반들려

전야에 울리는 트락트르의 동
음을 싣고
노드치는 무쇠철갑의 우렁찬
메아리
선군조선의 국력을 떨치며

4월의 봄강산에 피는 꽃 많
아도
용해공 우리 위는 쇠물꽃다
발을
수령님 제일로 기쁘게 받으
시리
아, 태양의 미소를 싣고
쇠물이 흐른다
주체철쇠물이 흐른다

리 연희
세상에 자랑높은 창성
정녕 뜨거운 그 자욱우에
오늘은 우리 장군님
새 세기 지방공업의 본보기로
꾸러
수령님 그 녀린
더욱 활짝 꽃피우시는 땅

모시고살아
산은 산마다 끝은 끝마다
어버이사랑 가득차면치는 내
고향
은 나라가 찾아오는 황금산
마루에서
그리움에 목매여 불러부르니

앞에도 황금산
뒤에도 황금산
내 고향 산과 산이
메아리로 반이외우네

아, 수령님! —
우리 수령님!
수령님 보내시는 미소런가
비해봉마루에 햇빛이 눈부시네

꽃을 이렇듯 훌륭하게 피은 비
결을 알고싶어하는 우리에게 책
인자 박성호, 판리원 박광복동
무들은 온실용 오일채취 꾸러
된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총과 아베단위의 일군
들과 종업원들이 리상적인
해비침각도와 습도조건, 통
풍조건을 타산하여 현대적
인 온실을 건설하기 위해
평양시의 여러 온실을 돌아
보면서 구제적인 설계안을
무르디혔으며 건설한 다음
에는 새로운 설비들을 도입
없이 장안제작하여 적용했
다는 사실은 우리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꽃가꾸기에 대한 해박한 지
식을 가지고 걸린 고리를 제
때에 풀어준다는 총구아베단
위 일군인 백민현동무에 대한
이야기도 인상적이었다.

온실들을 돌아보면서 보
고 듣고 느낀 감동이 끝수
록 우리의 눈앞에는 소중히
안겨오는 모습들이 있었다.

김일성화평정리화온실은
불멸의 꽃재배를 편리하게
더 현대적으로 꾸리는데
성공을 이룬다. 총구아베단
위 일군들과 종업원들,
태양의 꽃을 훌륭히 가꾸어
가는 온실관리원들의 일손
을 소중없이 도와주며 지성
을 바쳐가는 그들의 가족들
모두도 우리는 진정 원에서
라고 정답게 부르고있다.

내 조국방 어디에서나
뜨
겁게 분출되는 이 소굴한
마음과 마음들이 떠날들려
위인정송의 꽃이 더욱 만발하
여 뜻깊은 꽃추천장을 환히
게 장식하리라는 확신을 안고
우리는 이곳을 떠났다.

백 성 근

소중히 안겨오는 모습들

꽃을 이렇듯 훌륭하게 피은 비
결을 알고싶어하는 우리에게 책
인자 박성호, 판리원 박광복동
무들은 온실용 오일채취 꾸러
된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총과 아베단위의 일군
들과 종업원들이 리상적인
해비침각도와 습도조건, 통
풍조건을 타산하여 현대적
인 온실을 건설하기 위해
평양시의 여러 온실을 돌아
보면서 구제적인 설계안을
무르디혔으며 건설한 다음
에는 새로운 설비들을 도입
없이 장안제작하여 적용했
다는 사실은 우리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꽃가꾸기에 대한 해박한 지
식을 가지고 걸린 고리를 제
때에 풀어준다는 총구아베단
위 일군인 백민현동무에 대한
이야기도 인상적이었다.

온실들을 돌아보면서 보
고 듣고 느낀 감동이 끝수
록 우리의 눈앞에는 소중히
안겨오는 모습들이 있었다.

김일성화평정리화온실은
불멸의 꽃재배를 편리하게
더 현대적으로 꾸리는데
성공을 이룬다. 총구아베단
위 일군들과 종업원들,
태양의 꽃을 훌륭히 가꾸어
가는 온실관리원들의 일손
을 소중없이 도와주며 지성
을 바쳐가는 그들의 가족들
모두도 우리는 진정 원에서
라고 정답게 부르고있다.

내 조국방 어디에서나
뜨
겁게 분출되는 이 소굴한
마음과 마음들이 떠날들려
위인정송의 꽃이 더욱 만발하
여 뜻깊은 꽃추천장을 환히
게 장식하리라는 확신을 안고
우리는 이곳을 떠났다.

백 성 근

그리움의 쇠물이 흐른다

4월의 하늘가에 붉은 노을
펼치며
쇠물이 흐른다
수령님 그리워 뜨겁게 불타는
용해공 우리의 마음어린가
주체철쇠물이 폭포처럼 흐른다

창공을 치솟고 높이도 솟은
주체철용광로
김철이 추켜든 대고조의 봉화
인가

붉어넘치는 화광속에
뜨거이 어려오는 수령님모습

쇠물을 볼 때처럼
기쁨 때는 없다시던 환하진
그 미소
용해장에 넘쳐흐르는듯
태양철이 아침도 보안경
시키고
쏟아지는 쇠물폭포 보아주시
는듯

우리는 반드시 주체철을 해야
한다시던

김영택

쇠물로 부강조국의 기둥을
붓고
인민의 요람 사회주의 큰집에
강철로 억만년 대를보를 얹어
주시려
덜고던 복변의 철의 기지를
찾아
오신 길 또 오시던 우리 수령님

우리는 반드시 주체철을 해야
한다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외국손님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10
일 제27차 4월의 봄 친선
예술축전 명에손님인 프랑스
인민운동맹출신 국회의원
의원장 프랑수아 망벨과 일
행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나라의 부강변
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세
계적주화위업수행과 나라들
사이의 친선관계 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
함없는 흠모의 마음안고
경애하는 수령님께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
였다.
【조선중앙통신】

신의 주렬사릉 준공

【신의주 4월 10일발 조선
중앙통신】신의주렬사릉이 건
설되였다.

렬사릉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조국의 해방
과 통일번영, 통일을 위한 투
쟁에 고귀한 생을 바친 렬사들
과 공로자들의 유해가 안치되
였다.

그들속에는 항일혁명렬사인
백남준, 반일애국렬사들인 임
정순, 임영선, 김백영, 민정식,
공화국영웅들인 홍영근, 리성
철, 박원익의 10명당원이었던
호헌학, 황순하, 심형설, 리석
준, 류기동, 신우현수, 리석
준군인민위원회 부위원장 홍순

한 등이 있다.
준공식이 10일에 진행되
였다.

평안북도의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일꾼들, 유가족들,
근로자들이 준공식에 참가하
였다.

참가자들은 렬사릉에 화환과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렬사들을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화환들의 명기에는 《애국렬
사들을 추모하여》라는 글발이
써여져있다.

리민정 평안북도당위원회 책
임비서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혁명렬사들의 위
훈과 공적을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크
나은 은정속에 렬사릉이 출

품히 건설되는데 대하여 언급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동지애에 떠받들려 일떠선
렬사릉은 당과 수령, 조국
과 인민을 위해 바친 삶은
영원하다는 진리를 가슴깊이
새겨주고있다고 그는 말
하였다.

그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유가족들, 새 세대들이 렬사
들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당
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인민
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기적과 혁신
을 창조할때 데하여 강조하
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
들은 렬사릉을 돌아보았다.

백화만발한 조국의 래일을 앞당겨가는 마음

그날도 실장 조선옥동무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오늘은 짝이 나왔는가?)
이 생각은 벌써 몇달째 그의
출근길을 계속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누가 보검발길 닿이 맡
겨준 혁명초소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성
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야 생
뿔나게 사는 사람입니다.》

평양화초연구소에서 새 품종
의 심비디움을 육종하기 위한
사투이 벌어지기 시작한것은
몇해전부터였다.

관과에 속하는 열대성식물인
심비디움은 그 진귀함과 아름
다움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어
지난 시기에는 돈많은 사람들
만이 향유하던 꽃이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향
기로운 꽃을 우리 인민에게 안
겨주고 싶었던 내 나라를 백화
만발한 사회주의지상낙원으로
꾸리시려는 자에게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일꾼들과
연구자들이 떨쳐나섰었다.

연구자들은 그것에 생각처럼 쉽
지 않았다. 10여개의 품종을
서로 섞어붙여 얻은 품종을
조직배양의 방법으로 싹피우려
고 하였지만 싹이 제대로 나오
지 않았다.

싹붙임을 잘 못하였는가?

싹피울 조건을 제대로 찾지 못
하였는가?

그 원인을 찾으려고 일꾼들
과 연구자들이 참고서를 뒤지
면서 지새운 밤은 얼마였는가.
실제에 싹피가 이어지지 않
아 연구자들이 손뼉을 놓는 때
도 없지 않았다.

그때마다 일꾼들은 말하였다.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
제일 훌륭한것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을 심장
기에 간직하고 기어이 새 품종
의 꽃을 육종하여야 한다.

조선옥동무를 비롯한 연구
사들은 심신을 가지고 분발해
나섰다. 그 과정에 씨앗씩도
에 알맞는 생육기간을 해명
하였으며 씨앗싹피우기를 위
한 조직배양 조건을 하나하나
찾아나갔다.

오늘은 짝이 나왔는가? 래
일은 짝이 나올가?
이렇게 달이 흐르고 달이 바
뀌었다. ...

연구소에 도착한 조선옥동무
는 확대경을 들고 조직배양실
에 들어갔다. 싹을 가능성이
충분히 마련된 시험관을 확대
경으로 주의깊게 들여다보던
그의 얼굴에 기쁨의 미소가
어렸다. 자그마한 파란색집이
이렇듯이 보였었다.

《성공이에요. 싹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일꾼들과 연
구사들이 달려왔다.

그들속에는 인민과학자, 교
수, 박사인 연구사 리호동무
와 제2연구실 실장 정문일,
연구사 방원일, 부원 김경숙동
무들도 있었다. 오랜 기간 화
초연구소에 종사하면서 많은
일을 한 그들이였다. 진귀하고
아름답기로 소문난 열대성화초
인 심비디움을 우리 나라의 실
정에 맞게 재배하기 위해, 새
품종의 심비디움을 육종하여
우리 인민에게 안겨주기 위해
그들이 바친 지혜와 열정은 얼
마였는가. 애로와 난관이 앞
을 막을 때마다 순간의 주저와 담
보를 모르고 오직 하나의 지향
만을 내뿜고 즐기며 달려온 그
들이였다. 자그마한 시험관안
에서 나오기 시작한 심비디움
의 새싹을 유심히 바라보는 그
들의 가슴은 더없는 긍지와 보
람으로 설레었다. 활짝 피어난
새 품종의 심비디움이 아름다
운 꽃바다를 펼치고 그윽한 향
기를 내뿜는 평정기 눈앞에 펼
쳐진것만 같았다.

일꾼들과 연구사들은 심신을
가치고 연구사에게 박수를 가
하였다.

정문일동무를 비롯한 연구사
들은 심비디움재배에서 우리 나
라에 실재하는 여러 시험관과 연
구사들이 달려왔다.

그들속에는 인민과학자, 교
수, 박사인 연구사 리호동무
와 제2연구실 실장 정문일,
연구사 방원일, 부원 김경숙동
무들도 있었다. 오랜 기간 화
초연구소에 종사하면서 많은
일을 한 그들이였다. 진귀하고
아름답기로 소문난 열대성화초
인 심비디움을 우리 나라의 실
정에 맞게 재배하기 위해, 새
품종의 심비디움을 육종하여
우리 인민에게 안겨주기 위해
그들이 바친 지혜와 열정은 얼
마였는가. 애로와 난관이 앞
을 막을 때마다 순간의 주저와 담
보를 모르고 오직 하나의 지향
만을 내뿜고 즐기며 달려온 그
들이였다. 자그마한 시험관안
에서 나오기 시작한 심비디움
의 새싹을 유심히 바라보는 그
들의 가슴은 더없는 긍지와 보
람으로 설레었다. 활짝 피어난
새 품종의 심비디움이 아름다
운 꽃바다를 펼치고 그윽한 향
기를 내뿜는 평정기 눈앞에 펼
쳐진것만 같았다.

연회 마련

연회에는 축전에 참가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
과 해외동포예술인들이 초대
되였다.

축전조직위원회 위원장인 안
동춘문화사, 축전조직위원회

리의 실재에 맞는 최적조건을 찾
아내기 위해 여러 시험관을 만들
어놓고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1만 수천개의 화분을 혼자
사 말아 관리하며 온갖 정성을
바친 정영희동무, 그 대학을
졸업한 처녀이지만 심비디움재
배에 필요한 우리 식의 유기질
비료를 해결할 높은 목표를 내
세우고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
인 김은정동무, 한개의 식물체
라도 병해충의 피해를 입지 않
도록 하기 위해 누가 보검발길,
알아주진말길 번 분무기를 다
용하고 있다. 몇해전 어느날
이였다. 재배기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재를 등에 지고 산
에서 내려오던 그는 내성산유
지주변에서 대학동창생을 만나
우리가 기를 수 있는 심비디움
을 재배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가고있다.

이제 그들이 육종한 수천개
에 달하는 새 품종의 심비디움
에서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어
나게 된다. 온갖 꽃이 만발하
여 그윽한 향기를 풍길 선군조
국의 메일은 또 얼마나 아름다
울것인가.

본사기자 김 승 표

《이 일도 누구든지 해야 할
것이다.》

연구사 리광성동무는 심비디
움재배에 필요한 우리 식의 기
질을 마련하기 위해 뜨거운 열
정을 기울였다. 몇해전 어느날
이였다. 재배기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재를 등에 지고 산
에서 내려오던 그는 내성산유
지주변에서 대학동창생을 만나
우리가 기를 수 있는 심비디움
을 재배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가고있다.

이제 그들이 육종한 수천개
에 달하는 새 품종의 심비디움
에서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어
나게 된다. 온갖 꽃이 만발하
여 그윽한 향기를 풍길 선군조
국의 메일은 또 얼마나 아름다
울것인가.

본사기자 김 승 표

《이 일도 누구든지 해야 할
것이다.》

연구사 리광성동무는 심비디
움재배에 필요한 우리 식의 기
질을 마련하기 위해 뜨거운 열
정을 기울였다. 몇해전 어느날
이였다. 재배기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재를 등에 지고 산
에서 내려오던 그는 내성산유
지주변에서 대학동창생을 만나
우리가 기를 수 있는 심비디움
을 재배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가고있다.

이제 그들이 육종한 수천개
에 달하는 새 품종의 심비디움
에서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어
나게 된다. 온갖 꽃이 만발하
여 그윽한 향기를 풍길 선군조
국의 메일은 또 얼마나 아름다
울것인가.

본사기자 김 승 표

《이 일도 누구든지 해야 할
것이다.》

연구사 리광성동무는 심비디
움재배에 필요한 우리 식의 기
질을 마련하기 위해 뜨거운 열
정을 기울였다. 몇해전 어느날
이였다. 재배기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재를 등에 지고 산
에서 내려오던 그는 내성산유
지주변에서 대학동창생을 만나
우리가 기를 수 있는 심비디움
을 재배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가고있다.

이제 그들이 육종한 수천개
에 달하는 새 품종의 심비디움
에서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어
나게 된다. 온갖 꽃이 만발하
여 그윽한 향기를 풍길 선군조
국의 메일은 또 얼마나 아름다
울것인가.

본사기자 김 승 표

국제육상련맹 - 제 24 차

만경대상마라손경기대회 진행

【평양 4월 10일발 조선중
앙통신】태양절에 즈음하여 국
제육상련맹-제 24 차 만경대
상마라손경기대회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경기대회개막식이 10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있었다.

개막식에는 조선로동당 중
앙위원회 비서 최봉해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마라
손협회 위원장인 동성호동지
전체공업상, 방관길 평양시인
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
문 일꾼들, 체육인들, 근로자들
이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와 중국, 로씨야,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스웨
덴, 에티오피아, 짐바브웨,
케니아선수들이 여기에 참가하
였다.

박명철체육상이 개막연설을
하였다.

그는 이번 경기대회가
태양절을 뜻깊게 기념하며
자주, 평화, 친선을 지향하
는 여러 나라 체육인들사이
의 우정을 두터이 하고 마라
손기술을 공동으로 발전시키
는데 기여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노래주악이 울리
는 속에 경기대회기발이 계약
되었다.

이여 마라손경기가 있었다.
신호소리가 울리자 기세
충천하여 출발선을 떠난
300여명의 남녀마라손선
수들이 완강한 투지와 인내
력을 발휘하며 전구간을 힘

차게 달리였다.

경기에서는 로씨야의 마루
쎄 올레그선수(남자)와 우리
나라의 로은숙선수(여자)
가 1등을, 케니아의 므랑기
모리스 모리리선수(남자)와
우리 나라의 안은숙선수(녀
자)가 2등을, 남아프리카의
니가제인 데이비드 라세파코
선수(남자)와 우리 나라의 박
정녀선수(여자)가 3등을
정취하였다.

개막식에서는 우수한 성
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수송
결과 메달, 상장이 수여되
였다.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노래주악이 울리
는 속에 경기대회기발이 계약
되었다.

이여 마라손경기가 있었다.
신호소리가 울리자 기세
충천하여 출발선을 떠난
300여명의 남녀마라손선
수들이 완강한 투지와 인내
력을 발휘하며 전구간을 힘



제 27 차 4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조직위원회

【평양 4월 10일발 조선중
앙통신】제 27 차 4월의 봄
친선 예술축전 조직위원회에서
는 축전참가자들을 위하여
10일 양강도국제호텔에서 연
회를 마련하였다.

친혈육의 심정으로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적극 도와주
는것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
들을 존대하는것은 총대
로 승리하여온 우리 혁명
의 전통이며 우리 사회의
고상한 정신도덕적기풍입
니다.》

보통 강구역종합식당 운화식
당 김홍실, 태선에동무들은
10여년간 전쟁로병이며 영예
군인인 율락규동무를 친자식의
심정으로 도와주고있다. 이들
은 전쟁로병의 건강과 생활에
늘 마음을 쓰면서 자주 집에
찾아가 보살펴주고 전사가요들
도 불러주면서 로병이 전회의
시절 그 기백으로 살아나가도
룩 잘 도와주고있다.

평성시 동무 1동사무소 일
꾼들은 동주인 영예군인 김
철봉동무의 가정에 자주 찾아

가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
라도 있을새라 영예군인을 보
살펴주면서 진정을 다해 도와
주고있다. 자기들이 바라는것
이 있다면 그것은 영예군인의
건강이고 혁명적인 방만과 생
활이라고 하면서 동사무소일
꾼들은 여러가지 생활필수품
들과 보약들도 마련해주고 새
로 나온 도서들도 가져다주면
서 김철봉동무가 언제나 병사
시절처럼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고있다.

만경대구역인민병원의 의료인
군들은 만경대구역 팽복2동
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 김인
경동무의 안해가 뜻하지 않은
일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
왔을 때 즉시 긴급구조대책을
세우고 영예군인의 안해의 건
강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한
전투를 진행하였다. 병원의
시절 그 기백으로 살아나가도
룩 잘 도와주고있다.

평성시 동무 1동사무소 일
꾼들은 동주인 영예군인 김
철봉동무의 가정에 자주 찾아

가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
라도 있을새라 영예군인을 보
살펴주면서 진정을 다해 도와
주고있다. 자기들이 바라는것
이 있다면 그것은 영예군인의
건강이고 혁명적인 방만과 생
활이라고 하면서 동사무소일
꾼들은 여러가지 생활필수품
들과 보약들도 마련해주고 새
로 나온 도서들도 가져다주면
서 김철봉동무가 언제나 병사
시절처럼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고있다.

만경대구역인민병원의 의료인
군들은 만경대구역 팽복2동
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 김인
경동무의 안해가 뜻하지 않은
일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
왔을 때 즉시 긴급구조대책을
세우고 영예군인의 안해의 건
강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한
전투를 진행하였다. 병원의
시절 그 기백으로 살아나가도
룩 잘 도와주고있다.

평성시 동무 1동사무소 일
꾼들은 동주인 영예군인 김
철봉동무의 가정에 자주 찾아

가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
라도 있을새라 영예군인을 보
살펴주면서 진정을 다해 도와
주고있다. 자기들이 바라는것
이 있다면 그것은 영예군인의
건강이고 혁명적인 방만과 생
활이라고 하면서 동사무소일
꾼들은 여러가지 생활필수품
들과 보약들도 마련해주고 새
로 나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제일동포들에게 보내주신 위문금을 전달하는 모임 일본 각지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일본에서 일어난 대우의 지진과 해일로 피해를 당한 제일동포들에게 보내주신 위문금을 미야기현의 피해동포들에게 전달하는 모임이 6일 도호조선초중급학교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장소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모임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책임부장과 총련중앙강급대책위원회 미야기현본부 일꾼들, 피해동포들, 유가족들이 참가하였다.

허종만책임부장이 전달사

를 하였다.

그는 경에 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불분류의 초강도강경군기를 이어가시는 속에서도 이번 대진재로 동포들이 막심한 피해를 입는데 대하여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50만US\$에 달하는 귀중한 위문금을 보내주시겠다고 말하였다.

동에 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동포애가 어려있는 위문금은 총련일꾼들과 동포들에게 고무적임을 언해주고있다고 그는 인정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만 계시면 어떤 난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하면서 미야기

현의 일꾼들과 동포들이 단합된 힘으로 총련조직의 복구와 피해동포들을 성성성의 도 도와주는 구원활동을 적극 전개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위문금을 허종만책임부의장이 대지진과 해일에 의해 희생된 동포유가족들과 피해자를 위해 긴급히 마련한 위문금을 전달하였다.

토론들이 있었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올리는 편지가 광동되었다.

모임은 《김정일장군의 노래》 합창으로 끝났다.

7일 허종만책임부의장은 리영식 총련 미야기현본부 위원장을 비롯한 일꾼들과 함께 오나가와, 이시노마키, 시오가마, 다카조지역의 피해일은 동포들의 집집을 찾아가 위문금을 전달하였다.

위문금을 전달받은 제일동포들은 만민이 우러르는 경에 하는 장군님의 제일동포들을 위해 거액의 귀중한 위문금을 보내주신대 대해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지진과 해일로 가족을 잃고 집과 재산이 다 없어졌지만 재운 어버이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고 총련

조직이 있기에 마음 든든하다고 하면서 위문금을 생명수로 하여 시련을 반드시 이겨내고야말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위문금을 이와대헌동포들에게 전달하는 모임이 8일 이와데조선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장과 이와데현의 총련일꾼들,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남승우부장이 전달사를 하였다.

이어 위문금이 피해동포들에게 전달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로골화되는 북침핵전쟁기도

연마진 미국 하와이에서 남조선미국 《핵확장억제위원회》 본회의가 있었다. 여기에서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은 누구의 《핵무기위협》을 운운하면서 그 무슨 《핵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이라는것을 올해 하반기에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두세차례 운용연습을 실시한 뒤 《핵무기위협》과 《제재전략》 그리고 《탄도미사일방어체계》 등 구체적인 운용수단을 적용하였는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에 따라 내외모략꾼들은 이마를 맞고도 정치군사적인 대응방법에 대한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이것은 주제가 진도된 핵전쟁광신자들의 무모한 도발행위이다.

도대체 《핵무기위협》의 가해자는 누구인가. 역사적으로 놓고볼 때 미국은 핵위협을 가해자이고 우리는 그 피해자이다. 이미 지난 조선전쟁때도 우리 인민에게 핵공격을 가하고 1950년대 후반기부터 남조선에 핵무기들을 비법적으로 끌어들이는 남조선은 극동최대의 핵화국으로 전변시킨 미국은 수십년동안 북침핵시험전쟁을 매일 같이 벌리면서 우리 공화국에 로골적인 핵위협을 가하여왔다. 그 책임이 남조선당국에는 없는가. 남조선의 역대 통치배들이 남조선은 미국의 핵확약고, 핵전쟁시험장으로 통째로 섬겨버리고 우리 민족, 우리 조국강토우에 핵화장을 몰아오는 외세의 핵전쟁소동을 부채질하고 그에 가담함으로써 우리 민족은 언제 한번 핵위협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특히 남조선당국이 대결전쟁론인 《비핵, 개방, 300》파위를 《대북정책》으로 내걸고 핵확약을 버리고는 《핵무기위협》을 극구 구걸하며 핵전쟁소동에 광분한탓에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은 지금 폭발직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파멸하게 그 누구의 《핵위협》을 요란스럽게 광고하며 미국과 함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서나리》연출에 열을 올리는것은 그들의 파멸치성과 반민족적인 핵전쟁기도를 그대로 보여준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대한 단순한 핵위협이 아니라는데 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운운하는 《핵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은 그들이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단계를 벗어나 본격적인 군사실천단계로 이행했다는것을

명백히 시사해주고있다. 지난 시기 내외호전광들은 《방어》의 간판밑에 북침핵전쟁연습을 벌였다면 오늘에 와서는 《핵무기위협》을 걸고 수많은 핵무기를 동원하여 우리에게 대한 핵전쟁공격연습을 공공연히 감행하다가 실제로 이행하려 하고있다. 엄중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야합하여 그 누구의 것도 않는 《핵무기위협》을 운운하며 북침핵전쟁공포에 열을 올리고있는 속심자체가 조선반도의 긴장상태와 북남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그 어떤 구실을 잡아 기여이 북침핵전쟁을 도발하자는데 있다.

그렇게 단정할 근거는 충분하다. 남조선당국은 최근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에 방대한 침략무력과 핵전쟁장비들을 동원하여 미제와 함께 남조선전역에서 북침을 노린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는것으로 도를 넘었다. 또한 무력증강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 307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고고도무인정찰기, 조기경보대체계, 스텔스전투기 등 핵전쟁수단들을 대대적으로 구입하여 핵전쟁수행능력을 높이고 핵전쟁을 하고있다.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북남관계개선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핵전쟁위협만 증대되고있는것이 외세와 작당하여 우리를 핵전쟁을 작정한 남조선당국의 범죄적행위의 필연적결과라는것은 더론할 여지도 없다.

현실은 우리가 허리띠를 조이며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강화한것이 얼마나 정당한것이였는가를 확증해주고있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내외호전광들의 핵위협으로부터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방패이다. 조성된 엄중한 사태는 우리를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에서 더욱 떠밀고 있다. 우리의 핵억제력강화가 이미 침범한 바다 같이 대화를 해도 통이 큰 대화를 하고 전쟁을 해도 진짜전쟁맛이 나는 전쟁을 하자는것이 우리의 확고한 의지이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대세에 역행하며 외세와 함께 북침핵전쟁의 도화에 끌려갈 불을 단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정의의 성전을 벌여 이 지구상에서 핵위협을 근원을 송두리채 짓밟아버리고야말것이다.

송영석

천출위인을 높이 모신 끝없는 금지와 영광

백두의 천출명장 경에 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행운을 가슴에 안고 사는 남녘인민들의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진정의 애절이다.

서울과 광주, 울산을 비롯한 남조선 곳곳에서 《김정일장군님을 공화국의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군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었기에 이북민중과 군대는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는 민중으로, 무적의 강군으로 된것이며 제노라 으시대는 미국도 감히 이복을 건드리지 못하고있는것이다.》, 《천하제일명장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었기에 오늘과 같이 복잡한 세계경제속에서도 이북은 혼들림없이 제 할 말을 다 하면서 당당하게 전진하고있다.》, 《사상 최약의 압력속에서도 이북이 언제나 승자가 되

는것은 바로 천출명장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기때문이다.》, 《경에 하는 장군님의 무적의 선군정치와 있었기에 우리 겨레가 내외원수들의 도전을 짓부시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길을 열어나갈수 있게 되었다.》라는 청송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나오고있다.

광주에서 한 시민단체성원은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지난날 우리 민족이 외세에게 자주권을 무런당하고 당국노의 설움속에 시들어간것은 탁월한 위인이 없고 국력이 쇠약했기때문이다. 하지만 민족수난의 그 격사는 앞으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것이다. 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천출위인상을 접하면서 그러한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된다.》

바로, 이북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우물쭈물거리는 미국

을 어떻게 코뎀어 끌고다니는가.

무적필승의 명장이시고 자주정치의 화신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고 그분의 선군정치와 있었기에 우리 겨레가 내외원수들의 도전을 짓부시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길을 열어나갈수 있게 되었다.》라는 청송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나오고있다.

광주에서 한 시민단체성원은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지난날 우리 민족이 외세에게 자주권을 무런당하고 당국노의 설움속에 시들어간것은 탁월한 위인이 없고 국력이 쇠약했기때문이다. 하지만 민족수난의 그 격사는 앞으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것이다. 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천출위인상을 접하면서 그러한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된다.》

바로, 이북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우물쭈물거리는 미국

을 어떻게 코뎀어 끌고다니는가.

무적필승의 명장이시고 자주정치의 화신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고 그분의 선군정치와 있었기에 우리 겨레가 내외원수들의 도전을 짓부시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길을 열어나갈수 있게 되었다.》라는 청송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나오고있다.

광주에서 한 시민단체성원은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지난날 우리 민족이 외세에게 자주권을 무런당하고 당국노의 설움속에 시들어간것은 탁월한 위인이 없고 국력이 쇠약했기때문이다. 하지만 민족수난의 그 격사는 앞으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것이다. 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천출위인상을 접하면서 그러한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된다.》

바로, 이북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우물쭈물거리는 미국

을 어떻게 코뎀어 끌고다니는가.

무적필승의 명장이시고 자주정치의 화신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고 그분의 선군정치와 있었기에 우리 겨레가 내외원수들의 도전을 짓부시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길을 열어나갈수 있게 되었다.》라는 청송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나오고있다.

광주에서 한 시민단체성원은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지난날 우리 민족이 외세에게 자주권을 무런당하고 당국노의 설움속에 시들어간것은 탁월한 위인이 없고 국력이 쇠약했기때문이다. 하지만 민족수난의 그 격사는 앞으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것이다. 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천출위인상을 접하면서 그러한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된다.》

바로, 이북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우물쭈물거리는 미국

민족의 숙원인 통일조국을 건설하자

범민련 남측본부 강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발표 18돐에 즈음하여 조국통일범민련합(범민련) 남측본부 6일 글을 발표하였다.

글은 김일성주석께서는 1993년 4월 6일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발표하시었다고 지적하였다.

로작에는 민족의 운명을 오직 하나의 사람이라면 북에 있던 남에 있던 해외에 있던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 재산의 유

무를 초월하여 굳게 단결합대 대한 사상이 밝혀져있다고 글은 언급하였다.

글은 또한 로작에는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나가야 하며 집족, 패왕, 대화를 통하여 전민족이 서로 협력하고 신뢰하며 단결합대 대한 사상이 담겨져있다고 밝혔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참으로 공명정대하고 위대한 통일대단결이라고 하면서 특히 2000년 6월 남북수뇌상봉은 이를 실천으로 꽃피우는 역사적인 분수령이었다고 글은

를 지적하였다.

최근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 외의 《대화》를 일버릇처럼 위대하고있다. 그러나 뒤에 돌아와서는 《보안법》을 휘두르며 대화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부정하고 동맹계절을 고취하는 폭압소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다.

올해에 남조선사법당국은 그 무슨 《조법》안정을 해칠 위협성이 크다.》고 떠들며대면서 우리 공화국을 찬양했다는 죄 아닌 《죄》를 들춰워 한 주민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며 《복제제에 동조하는 단체를 구성하고 친북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실권편대의 조직발전위원장을 처형할 가하는 망동을 저질렀다. 지어 주민들의 인터넷활동의 자유까지 말살하며 사회적으로 날로 높아가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동경심을 어눌러버리고 책동하고있다. 남조선사법당국이 《복제제와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고대남투쟁을 선포》한다고 고아대면 수 64개에 달하는 인터넷사이트들을 《천복사이트》로 규정하고 그 정보를 완전히 차단한 사실이 그것을 보여주었다.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사상관습들은 정의와 진리를 갈망하고 자주적인 새 정치, 새 생활을 바라는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탄복하게 짓밟는 인권유린행위이며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가로막고 불신과 대결의 현 북남관계를 지속시켜 저들의 불순한 체제대결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시대착오적인 망동이다. 현실은 동맹에 대한 남조선당국자들의 적대감과 대결관념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를 지적하였다.

최근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 외의 《대화》를 일버릇처럼 위대하고있다. 그러나 뒤에 돌아와서는 《보안법》을 휘두르며 대화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부정하고 동맹계절을 고취하는 폭압소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다.

올해에 남조선사법당국은 그 무슨 《조법》안정을 해칠 위협성이 크다.》고 떠들며대면서 우리 공화국을 찬양했다는 죄 아닌 《죄》를 들춰워 한 주민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며 《복제제에 동조하는 단체를 구성하고 친북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실권편대의 조직발전위원장을 처형할 가하는 망동을 저질렀다. 지어 주민들의 인터넷활동의 자유까지 말살하며 사회적으로 날로 높아가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동경심을 어눌러버리고 책동하고있다. 남조선사법당국이 《복제제와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고대남투쟁을 선포》한다고 고아대면 수 64개에 달하는 인터넷사이트들을 《천복사이트》로 규정하고 그 정보를 완전히 차단한 사실이 그것을 보여주었다.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사상관습들은 정의와 진리를 갈망하고 자주적인 새 정치, 새 생활을 바라는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탄복하게 짓밟는 인권유린행위이며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가로막고 불신과 대결의 현 북남관계를 지속시켜 저들의 불순한 체제대결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시대착오적인 망동이다. 현실은 동맹에 대한 남조선당국자들의 적대감과 대결관념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를 지적하였다.

최근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 외의 《대화》를 일버릇처럼 위대하고있다. 그러나 뒤에 돌아와서는 《보안법》을 휘두르며 대화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부정하고 동맹계절을 고취하는 폭압소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다.

올해에 남조선사법당국은 그 무슨 《조법》안정을 해칠 위협성이 크다.》고 떠들며대면서 우리 공화국을 찬양했다는 죄 아닌 《죄》를 들춰워 한 주민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며 《복제제에 동조하는 단체를 구성하고 친북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실권편대의 조직발전위원장을 처형할 가하는 망동을 저질렀다. 지어 주민들의 인터넷활동의 자유까지 말살하며 사회적으로 날로 높아가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동경심을 어눌러버리고 책동하고있다. 남조선사법당국이 《복제제와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고대남투쟁을 선포》한다고 고아대면 수 64개에 달하는 인터넷사이트들을 《천복사이트》로 규정하고 그 정보를 완전히 차단한 사실이 그것을 보여주었다.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사상관습들은 정의와 진리를 갈망하고 자주적인 새 정치, 새 생활을 바라는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탄복하게 짓밟는 인권유린행위이며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가로막고 불신과 대결의 현 북남관계를 지속시켜 저들의 불순한 체제대결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시대착오적인 망동이다. 현실은 동맹에 대한 남조선당국자들의 적대감과 대결관념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하늘로 날아난 《반값등록금》 공약

본사기자 라설하

얼마전 남조선의 한 언론은 지금 극심한 생활고에 내달라다 못해 자살하는 대학생들이 한해에 무려 200~300명에 달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남조선의 한 기사가 40여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데 의하면 응답자의 26%이상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휴학해야 할 처지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등록금문제로 대학생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있는가를 잘 말해주고있다.

남조선대학생들에게 있어서 방학의 시작은 고된 노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다. 그들은 엄청난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방학기간 벌벌 수모를 다 받으며 고된 로동을 강요당하고있다. 많은 학생들이 방학기간 쉬지도 못하고 동이 휘도록 일을 하고있으며 대학생들 경우 성취를 당하기가 일쑤이고 대학생들은 음식물을 나르던 도중 교통사고로 목숨까지 잃는다. 그런데 이렇게 번 돈도 대학에 내야 할 액수에 비하면 훨씬 적다고 한다.

알려진데 의하면 남조선에서 한명씩 대학공부시키는데는 등록금은 수만US\$이상은 달한다. 그러다보니 빈곤층은 물론 중산층이라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힘들게 벌

어들이 돈을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자녀의 등록금으로 다마쳐도 모자라는 형편이라고 한다.

남조선당국자는 지난 《대통령선거》때 자기가 집권하면 대학생들을 반드시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반값등록금》 공약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그 이후 《반값등록금》은 고사하고 현 보수당국의 《대학문화화》, 《대학민영화》 정책으로 오히려 등록금이 점점증승 뿔어오르는 사태가 벌어졌다. 보수당국의 정책을 두고 대학의 모리간상배들이 더 많은 돈을 긁어모기 위해 등록금정책으로 끌어올렸었다. 특히 사립대학들의 등록금상승은 상상밖이라고 한다.

남조선대학생들을 비롯하여 각계는 당국의 반민족적인 교육정책에 분노를 표시하면서 집권세력이 자기들이 한 《반값등록금》 공약대로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취할것을 강력히 요구해나서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집권세력은 《선거공약》으로 《반값등록금》을 약속한적이 없었으니,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들의 고층》을 리해한다느니 뉘니 하며 오히려 등록금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대학생들과 각계 단체들의 투쟁을 탄압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경찰당국은

시민주의단체들과의 반대하에 당국의 《반값등록금》 공약리행을 요구하여 《등록금대투위》와 《21세기 대학학생련합》이 신청한 집회허가신청을 부당한 구실을 대고 부정하였다. 또한 리허나재회교총학생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등록금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주호를 제했다 하여 그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들춰워 책임을 가하였다.

한편 남조선당국은 각계의 요구대로 《반값등록금》 공약리행을 내설 대신 《학자금대출》이라는것을 계속 고집하면서 그것이 등록금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학생들과 가정들에 어떤 도움이라도 되는듯이 너스레를 떨고있다.

《학자금대출》 제도만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비롯한 학비로 바칠 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고 졸업한 다음 그 빚을 갚는것이다. 얼핏 보면 생활현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한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대출후후 직접업자가 하늘의 별따기이고 대출받은 학자들이 해마다 리자로 계속 붙어나는데 그들이 그 많은 돈을 과연 어떻게 구한다 말인가.

얼마전 한 인터넷신문에는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당국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민중에게서 영항을 사정받지않는

를 지적하였다.

최근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 외의 《대화》를 일버릇처럼 위대하고있다. 그러나 뒤에 돌아와서는 《보안법》을 휘두르며 대화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부정하고 동맹계절을 고취하는 폭압소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다.

올해에 남조선사법당국은 그 무슨 《조법》안정을 해칠 위협성이 크다.》고 떠들며대면서 우리 공화국을 찬양했다는 죄 아닌 《죄》를 들춰워 한 주민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며 《복제제에 동조하는 단체를 구성하고 친북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실권편대의 조직발전위원장을 처형할 가하는 망동을 저질렀다. 지어 주민들의 인터넷활동의 자유까지 말살하며 사회적으로 날로 높아가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동경심을 어눌러버리고 책동하고있다. 남조선사법당국이 《복제제와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고대남투쟁을 선포》한다고 고아대면 수 64개에 달하는 인터넷사이트들을 《천복사이트》로 규정하고 그 정보를 완전히 차단한 사실이 그것을 보여주었다.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사상관습들은 정의와 진리를 갈망하고 자주적인 새 정치, 새 생활을 바라는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탄복하게 짓밟는 인권유린행위이며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가로막고 불신과 대결의 현 북남관계를 지속시켜 저들의 불순한 체제대결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시대착오적인 망동이다. 현실은 동맹에 대한 남조선당국자들의 적대감과 대결관념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를 지적하였다.

최근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 외의 《대화》를 일버릇처럼 위대하고있다. 그러나 뒤에 돌아와서는 《보안법》을 휘두르며 대화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부정하고 동맹계절을 고취하는 폭압소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다.

올해에 남조선사법당국은 그 무슨 《조법》안정을 해칠 위협성이 크다.》고 떠들며대면서 우리 공화국을 찬양했다는 죄 아닌 《죄》를 들춰워 한 주민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며 《복제제에 동조하는 단체를 구성하고 친북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실권편대의 조직발전위원장을 처형할 가하는 망동을 저질렀다. 지어 주민들의 인터넷활동의 자유까지 말살하며 사회적으로 날로 높아가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동경심을 어눌러버리고 책동하고있다. 남조선사법당국이 《복제제와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고대남투쟁을 선포》한다고 고아대면 수 64개에 달하는 인터넷사이트들을 《천복사이트》로 규정하고 그 정보를 완전히 차단한 사실이 그것을 보여주었다.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사상관습들은 정의와 진리를 갈망하고 자주적인 새 정치, 새 생활을 바라는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탄복하게 짓밟는 인권유린행위이며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가로막고 불신과 대결의 현 북남관계를 지속시켜 저들의 불순한 체제대결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시대착오적인 망동이다. 현실은 동맹에 대한 남조선당국자들의 적대감과 대결관념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를 지적하였다.

최근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 외의 《대화》를 일버릇처럼 위대하고있다. 그러나 뒤에 돌아와서는 《보안법》을 휘두르며 대화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부정하고 동맹계절을 고취하는 폭압소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다.

올해에 남조선사법당국은 그 무슨 《조법》안정을 해칠 위협성이 크다.》고 떠들며대면서 우리 공화국을 찬양했다는 죄 아닌 《죄》를 들춰워 한 주민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며 《복제제에 동조하는 단체를 구성하고 친북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실권편대의 조직발전위원장을 처형할 가하는 망동을 저질렀다. 지어 주민들의 인터넷활동의 자유까지 말살하며 사회적으로 날로 높아가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동경심을 어눌러버리고 책동하고있다. 남조선사법당국이 《복제제와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고대남투쟁을 선포》한다고 고아대면 수 64개에 달하는 인터넷사이트들을 《천복사이트》로 규정하고 그 정보를 완전히 차단한 사실이 그것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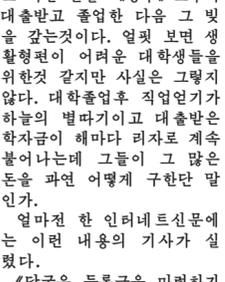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사상관습들은 정의와 진리를 갈망하고 자주적인 새 정치, 새 생활을 바라는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탄복하게 짓밟는 인권유린행위이며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가로막고 불신과 대결의 현 북남관계를 지속시켜 저들의 불순한 체제대결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시대착오적인 망동이다. 현실은 동맹에 대한 남조선당국자들의 적대감과 대결관념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를 지적하였다.

최근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 외의 《대화》를 일버릇처럼 위대하고있다. 그러나 뒤에 돌아와서는 《보안법》을 휘두르며 대화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부정하고 동맹계절을 고취하는 폭압소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다.

올해에 남조선사법당국은 그 무슨 《조법》안정을 해칠 위협성이 크다.》고 떠들며대면서 우리 공화국을 찬양했다는 죄 아닌 《죄》를 들춰워 한 주민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며 《복제제에 동조하는 단체를 구성하고 친북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실권편대의 조직발전위원장을 처형할 가하는 망동을 저질렀다. 지어 주민들의 인터넷활동의 자유까지 말살하며 사회적으로 날로 높아가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동경심을 어눌러버리고 책동하고있다. 남조선사법당국이 《복제제와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고대남투쟁을 선포》한다고 고아대면 수 64개에 달하는 인터넷사이트들을 《천복사이트》로 규정하고 그 정보를 완전히 차단한 사실이 그것을 보여주었다.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사상관습들은 정의와 진리를 갈망하고 자주적인 새 정치, 새 생활을 바라는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탄복하게 짓밟는 인권유린행위이며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가로막고 불신과 대결의 현 북남관계를 지속시켜 저들의 불순한 체제대결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시대착오적인 망동이다. 현실은 동맹에 대한 남조선당국자들의 적대감과 대결관념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반값등록금》 공약리행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대학생들

범법자들 악법 폐지를 주장

남조선의 범법자들이 3월 28일 서경대학교에서 토론회를 가지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악랄성을 단죄하였다.

토론회자들은 현 《정권》이 들어왔을 이후 기차지정, 1인 시위로 불법으로 몰리우는것이 보편화되고 특히 선전관을 들거나 주호를 제쳐두는 탄압당하고있다고 개탄하였다.

그들은 집회나 시위에 대해 48시간전에 관할경찰서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경찰이 허가하

반공화국대결의식주입책 동을 규탄

남조선의 참여연대가 3월 29일 논평을 발표하여 아이들에게 반공화국대결의식을 주입시키는 괴뢰당국자의 비렬한 음모책동을 비난하였다.

논평은 지난 25일 국방부와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반공화국화살총을 위한 광해강사》라는것을 체결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것은 당국이 제작한 반공화국선전영상과 군부대시찰방문 등을 통해 유적생물과 어린 학생들에게 동족대결의식을 주입시키기 위한것이라고 논평은 밝혔다.

논평은 각서에 따라 경찰이 학교에서 합선침투사건관련 영상물을 상영하고 학교에 학생들에게 대결주제의 글짓기와 그림그리기를 강요하고있다고

당국의 사기 행위를 비난

재미동포인 인터넷신문 《민중통신》이 3일 남조선피해동포의 사기행위를 비난하는 글을 실었다.

글은 현 집권자가 《대통령선거》에 《동남권선공향건설》이니 뉘니 하고 허위공약들을 팔팔하며 해당 지역 정치에서 지지표를 끌어모았지만 리행한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집권 3년동안 리명박의 행은 거짓과 이중기만으로 가득차있다. 【조선중앙통신】

빛 더미에

남조선의 《경향신문》 8일 부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현 피

우려 과 앞은 남조선

피망국의 집권 3년간 재무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그 리자가

우려 과 앞은 남조선

은 50조원에 이르렀다. 【조선중앙통신】

일제의 과거 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 요구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들이 7일 서울에서 일본의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일제에 의해 갖은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사죄와 배상을 받지 못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더욱 가슴아픈것은 일본을 비롯한 해외 각지로 강제연행되었던 사람들의 유해가 아직

일제의 과거 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 요구

까지 그곳에 흩어져있는것이라고 그들은 호언하였다.

그들은 일본이 《독도명유권》을 주장하며 역사외곡에 매달림으로써 우리 민족의 영원한 원수, 적으로서의 정체를 더욱 날남이 드러내보였다고 규탄하였다.

일본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철저히 배상할것을 그들은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대한사회의

《한나라당》의 예산안날치

대한사회의

【조선중앙통신】

대한사회의

【조선중앙통신】

일본은 과거 일제의 조선강점정책의 범죄적산물인 《일본해》 표기책동을 당장 걸어치워야 한다

조선동해의 명칭은 가장 이른 시기 조선사람들에 의하여 명명되어 수천년동안 《동해》로 불리워왔다. 하지만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조선에 대한 일본의 침략야망이 증대되고 조선강점정책이 단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그와 보조를 같이하여 조선동해를 《일본해》로 의곡남조한 다음 파편지까지도 1929년에는 식민지종주국의 지위를 악용하여 조선동해를 《일본해》이름으로 국제수로 기구에 등록하였다.

이렇듯 조선동해의 《일본해》 표기는 일제의 조선강점정책과 제국주의적팽창정책의 직접적인 범죄적 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 일본은 미제의 침략적인 대조선정책에 편승하여 조선에 대한 식민지 통치의 시회와 배상승인등 종전 반공화국대대시정책을 일삼으면서 병도적야망을 띠며 독도강탈책동을 추구하는 한편 조선동해의 《일본해》 표기를 한사코 고집해나서고있

다. 새 세기에 들어서서도 일본은 《일본해》 표기를 주장하면서 막대한 자금까지 들이밀어 일본의 의도와 각국 주재 일본대사관들은 물론 각종 출판물들과 방송수단들, 인터넷까지 동원하여 《일본해》 명칭을 국제사회에 공인시켜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지어는 《조선동해》 명칭대신 《일본해》 표기를 주장하는 12페이지분량의 소책자를 만들어 미국의 주요언론들과 단체들, 여러 국제기구들을 대상으로 맹렬한 선전활동을 벌리는 한편 유엔지명표준화회의와 유엔지명전문위원회, 바다명칭에 대한 여러 국제학술회의와 학술포럼들에서 《일본해》 표기를 고집하고있다.

이러한 일침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역사학회는 조선동해명칭의 역사적기원과 지도 및 지명명명의 국제적판례 등을 통해 본 《일본해》 표기의 부당성을 가감하며 그 반동성을 규탄하는 글을 발표하게 된다.

》고 이야기의 서두를 썼다. 이밖에도 《삼국유사》의 10여곳에 동해관련 기사가 실려 있다. (《삼국유사》 권 1 기어 2) 《동해》 표기는 상기 고문헌자료 뿐 아니라 당시의 조선사람들이 직접 바위에 새긴 금석문자자료에도 있다. 광개토태왕비의 비문 제3편 제8행에 《동해고국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있는데 《동해고국연》이란 구절은 광개토태왕비문에서 묘지기연호(호수)를 밝힌 단락에 있다.

광개토태왕비는 414년 광개토태왕의 말마디 고거려이 세운것으로서 문헌기록뿐 아니라 당사사람이 직접 새긴 금석문물도 고거려사람들이 나라의 동쪽바다를 《동해》라고 불렀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있다. 우리는 고거려사람들이 직접 만들어 새긴 광개토태왕비문의 《동해》 표기를 《옛날 동해통왕의 말이 속행을 잃었다는데...》 하며 시작되는 고거려의 《토끼와 거북이이야기》와도 부러지코야야 할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동해바다를 개척 정복하였다는 사실은 일본열도의 동해연안에 남아 전해오는 고대조선의 유적유물의 분포와 옛 문헌자료들을 통하여서도 예분수 있다. 조선에서 일본열도연안의 진출을 동해바다를 개척정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생각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이즈모(시마네현)와 호기(돗토리현) 그리고 노토반도 등지에 고거려와 가야, 신라시대의 유적유물이 적지 않게 분포되어있었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조선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조선의 동해를 개척하고 자기의 문화와 일본열도에까지 전파하였다. 우의 《연오랑과 세오녀》 이야기의 일제 시라사람들도 조선동해를 개척하면서 일본열도에 건너간 내용을 생동하게 전하고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동해》라는 바다명칭은 수천년전 전적으로 2천 수백년전부터 우리 나라의 고대국가, 고대조선사람들에 의하여 창조되어왔으며 삼국시대에 와서도 고거려와 신라사람들에 의해 《동해》라고 불리워왔다는 사실을 역력히 확증해주고있다.

원래 《동해》라는 명칭은 나라(조선)의 동쪽에 있는 바다라는 지리적개념이 그대로 지명화(바다이름화) 된것이다. 동해와 대칭되는 반도의 서쪽에 있는 바다를 《서해》라는 명칭으로 부른것도 마찬가지이다. 《삼국사기》(권 28 백제본기)에 의하면 백제가 말갈에게 《왕도의 우물물이 피색으로 되었고 서해변연가에 작은 물고기가어 무수히 죽었는데 백성들이 다 먹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백제왕을 차지한 신라도 백제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나라의 서쪽바다를 《서해》라고 불렀던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불려오던 조선의 《동해》, 《서해》 명칭은 고대시대의 《삼국사기》에 이어 중세기 전기간에 걸쳐 사용되어왔다. 이에 대하여서는 《고려사》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증보문헌비고》, 려대 《리조실록》 등 판권력사지리책들에 명문으로 한결같이 《동해》로 표기한것을 통해서도 여실히 확증된다.

17세기의 실학자 리수광은 자기의 저서 《지봉유설》에서 울릉도, 삼봉도등 《동해가운데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해사람이 니머를 바쳤다.》고 하는 기사 등 10여개소에서 동해관련 기사를 실었다. 동해 표기는 《삼국사기》뿐 아니라 《삼국유사》에도 실려있다. 《삼국유사》는 13세기 고려의 중 일제(1206-1289)이 쓴 역사책으로서 《삼국사기》에서 누락된 귀중한 자료들이 많다. 이 《삼국유사》에 157년의 일이라면서 신라의 연오랑과 세오녀가 왜 땅에 갔다는 기사내용을 실었는데 여기에서 《삼국유사》는 《동해바다》에 연오랑과 세오녀의 부부가

》에는 서해, 남해와 함께 동해가 명기되어있으며 18세기말의 지도인 《조선일분류규도》에도 동해가 정확한 위치에 표기되어있다. 이와 반면에 《일본해》 표기는 《동해》 표기가 나온 때로부터 수천년이 지난 후에 쓰였으나 그나마도 처음에는 오늘날의 조선동해의 명칭이 아니라 태평양연안의 바다에 대한 호칭이었다. 애당초 《일본》이라는 국호자체가 7세기에 와서야 생겨났던것이다.

우리 나라의 《삼국사기》와 중세의 려대 역사책들에 일본열도를 가리켜 《왜》라고 불렀으며 왜 땅에서 사는 사람들을 《왜인》이라고 불렀다. 일본열도에 사는 주민들이 6-7세기 아마포통 일국가를 형성한 다음에도 오베페인 《왜》 또는 《왜국》이라고 호칭하였다. 그러다가 670년에 와서야 비로소 왜국을 《일본》이라고 고쳐불렀다. 이에 대하여 《삼국사기》(권 6 신라본기 무분왕 10년)에서는 《왜국이 국호를 일본으로 고쳤다. 스스로 말하기를 해가 가까이 솟는 곳에 있기때문에 그렇게 말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역사책 《고구려서》(동이 왜국전)에는 《일본국이란 왜국의 별칭이다. 그 나라가 해가 가까이 있다고 하여 일본이라고 말았다고 하며 혹은 말하기를 《왜국이란 이름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제스르 미워하여 이름을 고쳐 일본이라고 하였다.》고도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알수 있는것처럼 《일본》이란 이름이 세상에 나온것은

2. 조선동해의 《일본해》 표기는 일제의 조선강점정책과 식민지통치의 범죄적산물

근대에 들어서서 유미자본주의 열강들의 조선동해에 대한 진출이 강화되면서 조선동해는 《조선해》 등으로 불리어왔다. 일본의 건문학자 다카하시 가게야스(1785-1829년)는 1809년에 만든 《일본번역약도》라는 지도에서 조선동해를 《조선해》로 표기하였고 가즈라가와 호슈(1751-1809년)가 1794년에 작성한 《아시아전도》에서도 조선동해를 《조선해》로 표기하였다. 뿐 아니라 제국사서인 《대일본제국사》(1774-1856년)이 만든 《만국지도원기》라는 지구의에서도 조선동해를 《조선해》로 표기하였다. 일본뿐 아니라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도 우리 조선동해를 《동해》 또는 《조선해》로 표기하여왔다. 물론 1245년 이탈리아의 크루스니가 쓴 《몽골원기》에 있는 《바렌드지도》와 1507년 마르탈드 실빌리가 만든 《세계지도》와 같이 우리 나라의 《조선동해》를 《동양해》로 표기한 예도 있다. 그것은 모름지기 중국의 동남해의 바다도 《동해》라고 한데로 부터 그것과 구분하기 위하여 《동양해》라고 표기한것 같다. 그러나 17세기초경부터 유럽을 비롯한 세계는 조선동해를 점차 《조선해》 또는 《고려해》라고 부르게 되었다.

1615년 보르투갈에서 만든 《아시아지도》를 비롯하여 20세기 전까지의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를 가하고있는데로 부터 산생 되었으며 조선반도의 현대경우도는 철두철미 조미대경우도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변함없는 방침이다. 미국이 힘으로 우리의 핵억제력포기를 시도하는것은 망상에 불과하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가중되면 필수적 자위적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관심이 있다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려야 할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언제나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앞에 지닌 의무를 성실히 리행해나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고작해야 670년 즉 7세기 후반기부터라는 사실이다. 반만년전의 고조선)와 대비해보아도 그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 670년에 비록 《왜》대신 《일본》이라고 하였으나 우리 나라와 중국에서는 의인 《왜》 또는 《왜인》이라고 불렀으며 언제 한번 온전하게 《일본》이라고 부른적이 없었다. 려사에 《왜구》, 《임진왜란》이라고 부른것이 그러한 실례이다.

하물며 《일본해》란 이름이 려사에 등장한것도 19세기 초엽에 와서부터였으며 그것도 대상이 오늘날의 조선동해가 아니라 일본열도의 태평양연안바다였다. 1727년 네베를란드사람인 켈페르 등이 만든 일본지도와 1752년에 제작된 베를의 일본지도에서는 일본열도동쪽의 태평양연해를 《일본해》로, 일본열도서쪽의 조선동해지역을 《조선해》로 표기해놓았다. 그리고 1942년에 출판된 도서 《대일본해》에서는 《일본해》가 태평양연안쪽을 표기된 15점의 지도를 소개하는데에 도다부시기에 일본열도의 동쪽바다를 《대일본해》, 《일본해》, 《일본동해》로 표기하였고 《오늘의 《일본해》(즉 조선동해)를 명칭 초기까지만 해도 《조선해》로 표기하는것이 유행》이었다고 쓰고 있다. 명칭초기만 1868년부터 1870년대사이를 말한다. 이것은 당시 일본인들이 조선동해를 조선의 바다로, 일본의 바다를 태평양양쪽 연안으로 인식하고있던 사상과 관련되어있다.

스, 네베를란드, 로씨야,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출판된 지도가 《조선해》 또는 《동양해》 등으로 불리어왔다. 지도뿐 아니라 유명한 스위프트의 장편소설 《갈리버 여행기》에도 조선동해를 《조선해》로 밝히고있고 1771년에 영국에서 편찬된 《대영백과사전》에도 조선동해를 《조선해》로 밝히고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명치유신이 있은 이후인 1870년에 처음으로 제국사서인 《대일본제국사》를 편찬한것이다. 만일 바다주변에 그러한 기준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바다의 특성이나 바다를 처음 개척한 탐험가들의 이름을 반영하여 바다이름을 짓기도 하였다. 60여개가 되는 세계의 바다들에 대한 이름은 거의나 다 이런 관례에 의하여 명명되었다. 세계에는 우리 나라 동해와 같은 연안해가 18개가 있는데 그중 2개가 관습적으로 《오호츠크해》, 《아라비아해》, 《동시비리해》와 같이 대륙들의 유명하였던 지명들에 사용되고 있다. 《베링그르 해》나 《산호해》와 같이 바다를 개척한 탐험가들의 이름이나 바다의 특성에 유래한것이나 지명의 지계 되었다. 알려졌던바와 같이 일본의 조선침략은 《정환론》이 대두한 19세기 후반기, 《강화도조약》 이후 시작되어 1894년 청일전쟁과 1904년 러일전쟁을 계기로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으며 1905년 《울사5조약》에 의한 조선의 식민지화와 1910년 국토회의 완전병합에 이르게 되었다. 일본의 동해에 대한 표기도 이에 따라 19세기말부터 《일본서해》, 《조선일분류해》, 《일본해》로 바뀌어갔으며 국호표기도 전통적인 K코메이로부터 K코메이로 바뀌어가다 1910년의 K코메이의 단일화에 이르게 되었고 우리의 신성한 명도인 독도를 《다케시마》로 둔갑되어 《울사5조약》이 날조된 해인 1905년에 일본령토에로의 편입

이 결정되게 되었다. 일본의 고지도들이선 전후화되어 있던 《조선해》 표기를 《일본해》로 의곡하기 시작했것이 일제의 조선침략의 개시기와 일치하고있으며 일본의 모든 지도, 출판물들에서 《조선해》 표기가 사라지고 《일본해》 단독표기만 허용된 시기가 일제의 조선강점시기와 일치하고있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준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군국주의자들 자신이 인정하고있다. 1893년에 발간된 《일본수산잡지》에서 군국주의자 세키자와 이끼기요는 《이미 《일본해》라는 이름의 조선동해가 아니라 일본열도의 태평양연안바다였다.》

3. 《조선동해》는 려사적정통성과 국제적 관례에 부합되는 가장 정당한 명칭

조선동해의 명칭은 그 려사적기원과 정통성, 국제적관례의 견지에서 볼 때 마땅히 《조선동해》로 명명되어야 한다. 현시기 지명발전의 세계적추세 바다이름명명의 국제적관례는 사회력사발전과정에 제기되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때문에 이 국제적관례와 기준을 존중하고 따르는것은 나라와 민족들이 지켜야 할 의무로, 준칙으로 되고있다. 바다이름명명에는 그러한 국제적관례가 있다. 바다이름명명의 국제적관례에 판례되어있는 기본원리는 특지에 비하여 늦게 인식되고 파악된 바다들에 대한 리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축적된 표지에 대한 리지적지식에 기초하여 바다이름을 짓는것이다. 지명발전의 세계적추세로 본다면 대륙기슭에 있는 바다(연안해)들은 그 주변의 대륙쪽에 있는 지리적대상물가운데서 이미 오래전에 세상에 널리 알려진 대상의 지명들을 그 이름으로 하며 섬들사이에 있는 바다들은 주변의 여러 섬들가운데서 역시 가장 유명한것들의 이름으로 명명하는것이다. 만일 바다주변에 그러한 기준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바다의 특성이나 바다를 처음 개척한 탐험가들의 이름을 반영하여 바다이름을 짓기도 하였다. 60여개가 되는 세계의 바다들에 대한 이름은 거의나 다 이런 관례에 의하여 명명되었다. 세계에는 우리 나라 동해와 같은 연안해가 18개가 있는데 그중 2개가 관습적으로 《오호츠크해》, 《아라비아해》, 《동시비리해》와 같이 대륙들의 유명하였던 지명들에 사용되고 있다. 《베링그르 해》나 《산호해》와 같이 바다를 개척한 탐험가들의 이름이나 바다의 특성에 유래한것이나 지명의 지계 되었다. 알려졌던바와 같이 일본의 조선침략은 《정환론》이 대두한 19세기 후반기, 《강화도조약》 이후 시작되어 1894년 청일전쟁과 1904년 러일전쟁을 계기로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으며 1905년 《울사5조약》에 의한 조선의 식민지화와 1910년 국토회의 완전병합에 이르게 되었다. 일본의 동해에 대한 표기도 이에 따라 19세기말부터 《일본서해》, 《조선일분류해》, 《일본해》로 바뀌어갔으며 국호표기도 전통적인 K코메이로부터 K코메이로 바뀌어가다 1910년의 K코메이의 단일화에 이르게 되었고 우리의 신성한 명도인 독도를 《다케시마》로 둔갑되어 《울사5조약》이 날조된 해인 1905년에 일본령토에로의 편입

제압하여 《신일본해》로 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떠들었다. 이것은 바로 조선동해가 《일본해》로 되게 된 경위와 진의도가 무엇인가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더우기 일제는 1920년대에 들어와 바다명칭의 표준화사업이 국제적인 범위에서 벌어지게 되자 식민지종주국의 지위를 리용하여 조선동해의 명칭을 《일본해》로 공식 등록함으로써 천만부당하게도 《일본해》가 조선동해의 국제적표준지명으로 둔갑하는 비정당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일제의 조선강점과 식민지통치가 완전한 비법이고 범죄로 되는만큼 《일본해》 표기의 《적법성》은 더론의할 여지가조차 없다. 일제의 《일본해》 표기책동, 《동해》 표기말살책동은 결국 동해의 해상주권을 탈취하기 위한 계획적인 침략행위이며 전조선의 영구 지배를 전제로 한 식민주의적팽창정책의 범죄적인 산물이었다.

《조선동해》는 려사적정통성과 국제적 관례에 부합되는 가장 정당한 명칭

조선동해의 명칭은 그 려사적기원과 정통성, 국제적관례의 견지에서 볼 때 마땅히 《조선동해》로 명명되어야 한다. 현시기 지명발전의 세계적추세 바다이름명명의 국제적관례는 사회력사발전과정에 제기되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때문에 이 국제적관례와 기준을 존중하고 따르는것은 나라와 민족들이 지켜야 할 의무로, 준칙으로 되고있다. 바다이름명명에는 그러한 국제적관례가 있다. 바다이름명명의 국제적관례에 판례되어있는 기본원리는 특지에 비하여 늦게 인식되고 파악된 바다들에 대한 리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축적된 표지에 대한 리지적지식에 기초하여 바다이름을 짓는것이다. 지명발전의 세계적추세로 본다면 대륙기슭에 있는 바다(연안해)들은 그 주변의 대륙쪽에 있는 지리적대상물가운데서 이미 오래전에 세상에 널리 알려진 대상의 지명들을 그 이름으로 하며 섬들사이에 있는 바다들은 주변의 여러 섬들가운데서 역시 가장 유명한것들의 이름으로 명명하는것이다. 만일 바다주변에 그러한 기준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바다의 특성이나 바다를 처음 개척한 탐험가들의 이름을 반영하여 바다이름을 짓기도 하였다. 60여개가 되는 세계의 바다들에 대한 이름은 거의나 다 이런 관례에 의하여 명명되었다. 세계에는 우리 나라 동해와 같은 연안해가 18개가 있는데 그중 2개가 관습적으로 《오호츠크해》, 《아라비아해》, 《동시비리해》와 같이 대륙들의 유명하였던 지명들에 사용되고 있다. 《베링그르 해》나 《산호해》와 같이 바다를 개척한 탐험가들의 이름이나 바다의 특성에 유래한것이나 지명의 지계 되었다. 알려졌던바와 같이 일본의 조선침략은 《정환론》이 대두한 19세기 후반기, 《강화도조약》 이후 시작되어 1894년 청일전쟁과 1904년 러일전쟁을 계기로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으며 1905년 《울사5조약》에 의한 조선의 식민지화와 1910년 국토회의 완전병합에 이르게 되었다. 일본의 동해에 대한 표기도 이에 따라 19세기말부터 《일본서해》, 《조선일분류해》, 《일본해》로 바뀌어갔으며 국호표기도 전통적인 K코메이로부터 K코메이로 바뀌어가다 1910년의 K코메이의 단일화에 이르게 되었고 우리의 신성한 명도인 독도를 《다케시마》로 둔갑되어 《울사5조약》이 날조된 해인 1905년에 일본령토에로의 편입

1. 《동해》는 시원적으로 가장 오랜 조선동해의 전통적인 이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모든 과학, 교육, 문화기관들을 독점하고 그것을 리용하여 조선인민의 민족적전통, 민족어, 민족적사각과 긍지를 말살하려 하였던것입니다.》 항해술이 높았던 우리 조선사람들은 일찍부터 조선동해를 개척하고 거기에로 적극 진출하였으며 이 과정에 동해에 있는 울릉도와 독도를 려용하였고 일본열도에도 진출하였다. 지리적으로 동해는 조선반도의 동쪽에 위치해있고 조선반도와 일본반도사이에서 놓여있으며 동해남부는 조선해협을 통해 태평양과 연결되어있다. 《동해》는 시원적으로 가장 이른 시기 조선사람들에 의하여 명명되었고 수천년동안 불리워오면서 사용된 조선의 고유한 바다이름이다. 조선동해를 불려오기에는 대륙연안과 섬들에는 조선민족을 비롯하여 여러 민족들이 살고있었지만 제일먼저 이 지역의 바다를 개척하고 바다이름을 명명한 사람들은 바로 조선사람, 조선민족이었다. 조선사람들은 인류문명의 첫 시기인 고대시기부터 조선동해를 개척하면서 울릉도에도 진출하여 고인돌무덤을 남기었고 6세기초이전에 울릉도와 독도를 통치지역으로 하는 우산국이라는 나라까지 형성하였으며 나아가서 일본열도에 대대적으로 진출하여 일본의 려사발전에 거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 과정에 우리 선조들은 동해에 대한 지식과 리해를 가지게 되었고 어떤 바다이름도 남기지 《동해》로 명명하였다. 삼국이전시기부터 쓰이기 시작한 《동해》 명칭은 그후 리조말기에 이르러까지 고착되어 일관하게 쓰여왔다.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동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시작한 일본은 흥명명야망으로 조선동해의 명칭 《일본해》라는 이름을 내걸고 세계지도 학계를 구심하게 혼란시켰었다. 《일본해》라는것은 아무런 려사적근거와 정통성도 없이 근대에 와서 일제가 주장했던 바다이름이다. 잘 알려져있는것처럼 모든 지명의 고착은 려사적유래와 연혁 그리고 려사정통성에 기초하여야 한다. 깊은 려사적근거에 기초한 지명만이 공평정대하게 세계의 지도에 오를수 있다. 《동해》 명칭은 깊고도 오랜 려사와 합리적인 근거, 판례성 정통성을 가지고있지만 반면에 《일본해》 명칭은 려사적으로 정통성도 없고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 조선의 동해바다를 제일먼저 개척하고 《동해》라고 명명한 사람은 일본사람도 아닌 바로 조선사람이었다. 그것은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비롯한 한국고전들에 명백히 기록된 려사적명칭이었다.

4월 유엔군측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나라 대표가 연설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지난 수십년 간 국제사회가 핵군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인류가 갈망하는 핵무기의 완전한 철폐는 여전히 초미의 과제로 남고있다고 말했다. 지구상이 핵무기 존재하고 그 위험에 있는 한 인류는 결코 핵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핵전파방지문제에 근원적으로 해결될수 없다고 하면서 그는 미국이 처음으로 핵무기를 만들고 그것을 실전에 사용하였으며 오늘날 핵무기현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핵무기독점을 영구화하려고 책동하고있는데 대해 까뻐했다. 그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 핵군축이나 핵위협제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핵력강들의 독점적지위

시원적으로 가장 전통적인 이름

우리 나라의 가장 오래된 려사적인 《삼국사기》(전 50권)는 고 려중엽의 대관으로 문호인 김부식(1075-1151)이 당시까지 전해오는 고거려의 《신집》, 《구삼국사》 등의 오랜 려사기록들을 추려모아 1145년에 편찬한 책이다. 비록 도서가 고거려기에 제편찬 되었지만 도서가 가지는 사료적가치와 신빙성은 대단히 높다. 《삼국사기》의 고거려본기 동명왕조에는 고거려의 건국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건국설화가 전하고있다. 고거려의 선왕인 나라인 부여국의 해부루왕의 신하 아란불이 꿈에서 하는(천제)의 계시를 받았는데 이그를 《강자 나의 자손으로 하여금 여기에서 나라를 세우게 하니 너는 그것을 피하라. 《동해》의 해변가에 가실원이라 하고 부르는 곳이 있는데 그 땅은 기름지고 오곡재배에 마땅하니 가히 수도로 정할만 하다.》고 하였다. 드디어 아란불이 임금에게 권하여 수도를 지막(가설원)에 옮기었다. 그리고 국호를 동부여라고 하였다. (《삼국사기》 권 13 고거려본기, 《삼국유사》 권 1 기어 2 동부여)

고거려시의 판묘이며 문호인 리규보(1168-1241)는 동명왕의 건국과정을 기록한 《구삼국사기》의 내용을 시로 읊었는데 《동명왕시》에기에도 명문으로 동부여건국과 관련한 개소의 바다는 《동해》라고 명기되어있다. 《삼국사기》와 리규보의 동명왕시편은 모두 동부여국의 건국설화이자 고거려의 건국설화이다. 고거려의 건국은 C. 277년이며 《삼국사기》가 끌어내린 잘못된 년대로 친다 해도 B. C. 37년이다. 다시말하여 지금으로부터 2천 수백년전에 우리 조상들은 오늘날의 조선동해를 《동해》라고 불렀던것이다. 이것을 려사기록이 증명해주고있다. 물론 우리 선조들은 동부여나 고거려건국이전시기에도 《동해》라고 불렀다. 《삼국사기》에는 47년의 일이리면서 《동해사람 고주리가 고뻬를 바쳤다.》는 기사와 107년의 일로서 《동해풀의 수(책뽕자)가 붉은 표범을 바쳤다.》는 기사 그리고 245년에 《동해사람이 니머를 바쳤다.》고 하는 기사 등 10여개소에서 동해관련 기사를 실었다. 동해 표기는 《삼국사기》뿐 아니라 《삼국유사》에도 실려있다. 《삼국유사》는 13세기 고려의 중 일제(1206-1289)이 쓴 역사책으로서 《삼국사기》에서 누락된 귀중한 자료들이 많다. 이 《삼국유사》에 157년의 일이라면서 신라의 연오랑과 세오녀가 왜 땅에 갔다는 기사내용을 실었는데 여기에서 《삼국유사》는 《동해바다》에 연오랑과 세오녀의 부부가

》에는 서해, 남해와 함께 동해가 명기되어있으며 18세기말의 지도인 《조선일분류규도》에도 동해가 정확한 위치에 표기되어있다. 이와 반면에 《일본해》 표기는 《동해》 표기가 나온 때로부터 수천년이 지난 후에 쓰였으나 그나마도 처음에는 오늘날의 조선동해의 명칭이 아니라 태평양연안의 바다에 대한 호칭이었다. 애당초 《일본》이라는 국호자체가 7세기에 와서야 생겨났던것이다. 우리 나라의 《삼국사기》와 중세의 려대 역사책들에 일본열도를 가리켜 《왜》라고 불렀으며 왜 땅에서 사는 사람들을 《왜인》이라고 불렀다. 일본열도에 사는 주민들이 6-7세기 아마포통 일국가를 형성한 다음에도 오베페인 《왜》 또는 《왜국》이라고 호칭하였다. 그러다가 670년에 와서야 비로소 왜국을 《일본》이라고 고쳐불렀다. 이에 대하여 《삼국사기》(권 6 신라본기 무분왕 10년)에서는 《왜국이 국호를 일본으로 고쳤다. 스스로 말하기를 해가 가까이 솟는 곳에 있기때문에 그렇게 말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려사책 《고구려서》(동이 왜국전)에는 《일본국이란 왜국의 별칭이다. 그 나라가 해가 가까이 있다고 하여 일본이라고 말았다고 하며 혹은 말하기를 《왜국이란 이름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제스르 미워하여 이름을 고쳐 일본이라고 하였다.》고도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알수 있는것처럼 《일본》이란 이름이 세상에 나온것은

원래 《동해》라는 명칭은 나라(조선)의 동쪽에 있는 바다라는 지리적개념이 그대로 지명화(바다이름화) 된것이다. 동해와 대칭되는 반도의 서쪽에 있는 바다를 《서해》라는 명칭으로 부른것도 마찬가지이다. 《삼국사기》(권 28 백제본기)에 의하면 백제가 말갈에게 《왕도의 우물물이 피색으로 되었고 서해변연가에 작은 물고기가어 무수히 죽었는데 백성들이 다 먹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백제왕을 차지한 신라도 백제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나라의 서쪽바다를 《서해》라고 불렀던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불려오던 조선의 《동해》, 《서해》 명칭은 고대시대의 《삼국사기》에 이어 중세기 전기간에 걸쳐 사용되어왔다. 이에 대하여서는 《고려사》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증보문헌비고》, 려대 《리조실록》 등 판권력사지리책들에 명문으로 한결같이 《동해》로 표기한것을 통해서도 여실히 확증된다.

17세기의 실학자 리수광은 자기의 저서 《지봉유설》에서 울릉도, 삼봉도등 《동해가운데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해사람이 니머를 바쳤다.》고 하는 기사 등 10여개소에서 동해관련 기사를 실었다. 동해 표기는 《삼국사기》뿐 아니라 《삼국유사》에도 실려있다. 《삼국유사》는 13세기 고려의 중 일제(1206-1289)이 쓴 역사책으로서 《삼국사기》에서 누락된 귀중한 자료들이 많다. 이 《삼국유사》에 157년의 일이라면서 신라의 연오랑과 세오녀가 왜 땅에 갔다는 기사내용을 실었는데 여기에서 《삼국유사》는 《동해바다》에 연오랑과 세오녀의 부부가

유엔군측위원회에서 우리 나라 대표 연설

4월 유엔군측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나라 대표가 연설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지난 수십년 간 국제사회가 핵군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인류가 갈망하는 핵무기의 완전한 철폐는 여전히 초미의 과제로 남고있다고 말했다. 지구상이 핵무기 존재하고 그 위험에 있는 한 인류는 결코 핵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핵전파방지문제에 근원적으로 해결될수 없다고 하면서 그는 미국이 처음으로 핵무기를 만들고 그것을 실전에 사용하였으며 오늘날 핵무기현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핵무기독점을 영구화하려고 책동하고있는데 대해 까뻐했다. 그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 핵군축이나 핵위협제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핵력강들의 독점적지위

을 가하고있는데로 부터 산생 되었으며 조선반도의 현대경우도는 철두철미 조미대경우도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변함없는 방침이다. 미국이 힘으로 우리의 핵억제력포기를 시도하는것은 망상에 불과하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가중되면 필수적 자위적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관심이 있다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려야 할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언제나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앞에 지닌 의무를 성실히 리행해나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시해수역에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까지 들이민 데 이어 올해 2월말부터 현재까지 각종 핵선적대륙수단들을 동원하여 남조선피해국과 함께 그 무손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고있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오늘날 미국의 핵위협은 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협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국가의 최고리익과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고 조선반도를 막서 핵전쟁이 일어나는것을 방지 위해 핵억제력을 마련하였다. 다시말하여 조선반도핵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미국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반세기이상 우리에게 핵위협을

을 가하고있는데로 부터 산생 되었으며 조선반도의 현대경우도는 철두철미 조미대경우도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변함없는 방침이다. 미국이 힘으로 우리의 핵억제력포기를 시도하는것은 망상에 불과하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가중되면 필수적 자위적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관심이 있다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려야 할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언제나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앞에 지닌 의무를 성실히 리행해나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에파드르정부 미국대사를 추방하기로 결정

에파드르정부가 최근 자기 나라 주재 미국대사를 추방하기로 결정하였다. 5일이 나라 외무장 리카르 수단의무장 알리 아흐마드 카르지가 6일 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분별한 공습만행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수단의무장 알리 아흐마드 카르지가 6일 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분별한 공습만행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이스라엘의 공습만행을 규탄

그는 5일 이스라엘비행기가 수단의 동부에 위치한 수단항에 미사일사격을 가하여 2명 의 민간인을 무참히 살해한데 대해 까뻐하고 자기 나라 정부 가 이에 단호히 대응할것이라고 미사일사격을 가하여 2명 의 민간인을 무참히 살해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에 따라 정부는 미국대사를 환영하지 않는 인물로 선포하고 그에게 시금인 예루살렘 떠날것을 요구하였다고 그는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빙구 열피해

바라파에서 빙구열이 퍼져 피해를 입고있다. 지난 3일 나라에서 2명의 빙구열환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로써 올해 들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빙구열에 의한 사망자수는 22명 으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5일부터 100여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빙구열방지를 위한 캠페인야를 벌리는 등 조치를 취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려사학학회

주제 100 (2011)년 4월 6일



만 마의 리력사 유적적